

‘명품도시’로 오세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도시’ 그 자체가 테마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과 한국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앞당겨

동북아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명품도시’ 인천으로 오십시오

- 기 간 : 2009년 8월14일(금) ~ 11월1일(일) 8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전역 (주전시장 :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원)
- 행사성격 : 비즈니스와 페스티벌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엑스포
- 관람목표 : 1,027만명 (해외관람객 68만명 포함)



Good Morning
INCHEON

인천의 영욕 간직한 공원



이관수 作 · 화선지(3배첩), 먹, 채색 · 400cm×180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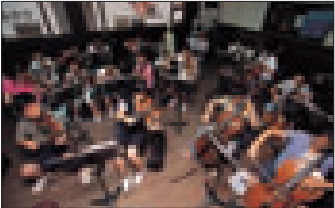
개항장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 조계지의 경계를 지우며 오른 만국공원(자유공원) 앞으로 펼쳐진 항구의 모습은 오늘도 분주하구나. 신미 · 병인양요 등 수많은 침탈에 시달린 앞 바다는 수심만큼 슬픔도 깊다. 지나간 역사는 미래를 만드는 힘이랄 수 있겠지만 감추고 싶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수모로 얼룩진 세대도 있었다. 지금도 조용히 누워있는 달꼬리 섬, 섬이 아닌 월미는 아프고 쓰린 가슴을 달래며 동북아로, 세계로 가고 있다. 명품도시 인천의 이름표를 달고. - 이관수 -



contents

August 2007

통권 164호



04	Exciting Incheon	SK 와이번스 & 문학야구장
08	Vision	2020 명품도시 선포
10	쿨 & 로맨틱 서머	열대야 퇴치 명소 5
14	여름방학 특별전	더위야 물러가라... 공룡남신다
16	이달의 공연	한중문화관 'Summer Rock Festival' 외
18	2007 인천 & 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Incheon Jazz Festival' 외
1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마살아츠 퍼포먼스 'Jump' 외
20	View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22	굿인천 굿뉴스	'영어도시 조성 본격 추진' 외
26	시의회 소식	'제5대 의회개원 제1주년' 외
28	모닝커피 한 잔	평등하게 '가족' 바라보기
29	Healthy Life 건강백세	헬리코박터균
30	인천시민 배움터 ①	토크하우스
32	인천시민 배움터 ②	시민대학
34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월미도
35	자매도시 우호도시 ⑤	하와이 호놀룰루
36	방학특집	체험프로그램
40	문화마을 순례	문화예술의 씨 뿌려 아름다운 꽃 피우는 '인음예술단'
42	김치찰각	'동검도에 가보세요' 외
4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44	인천이 담긴 詩 ⑧	최경섭의 '바다'
46	꿀독이 · 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⑦	서울까지 배달했던 인천 냉면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박사론 씨
52	독자글 마당	'떠나요~승봉도~' 외
54	Info Box	'인향초 · 중 · 고등야간학교 신입생 모집' 외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장어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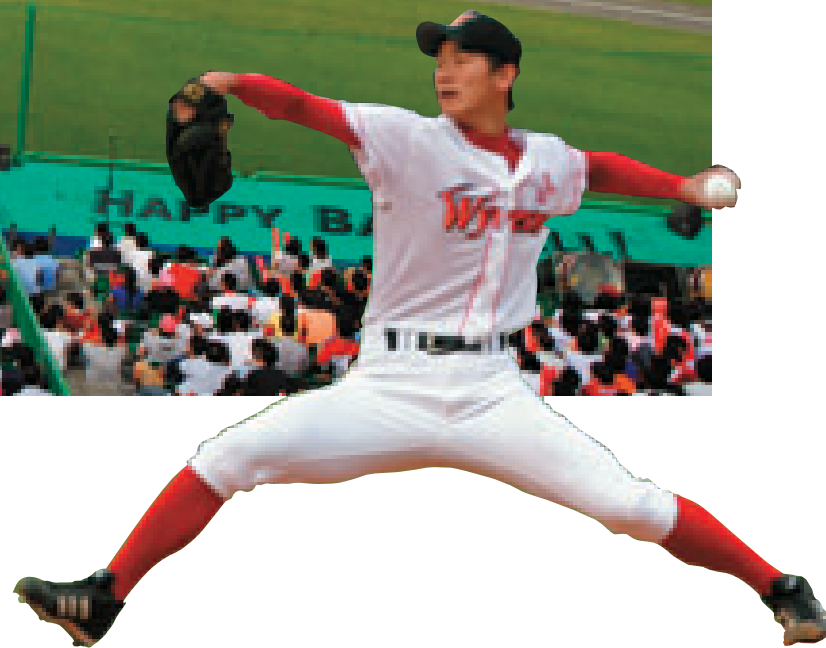


인천 뜬다

우리야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다

2007년 문학야구장이 붉은 물결로 넘실댄다. 올 시즌 상반기 11연승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세운 SK 와이번스. 인천의 이름을 내걸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의 열정과 그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함성이 모여 인천을 하나로 만든 것이다.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천야구의 저력으로 한국시리즈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날까지, 모두 함께 외치자. '하늘 높이 비상하라 자랑스러운 인천의 와이번스여! 인천시민이여!'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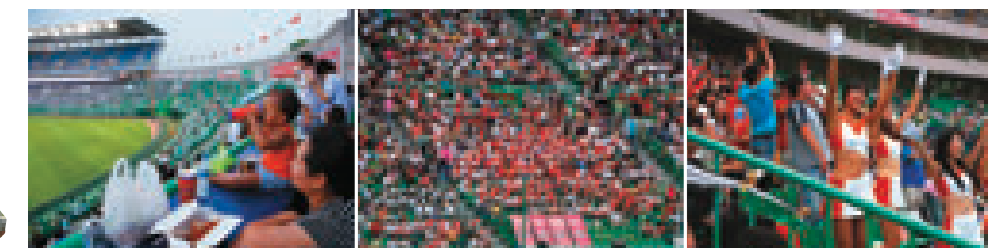


2007년 우리는 열광한다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가 11연승으로 팀 최다연승 기록을 경신하며 상반기 시즌 선두 자리에 올랐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믿음과 열정으로 일궈낸 기적이기에 시민들은 더 크게 환호했다. 지난 7월 15일,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는 1만8천855명의 관중이 찾아 올 시즌 홈경기 입장관중 47만5천7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인천 프랜차이즈 팀 한 시즌 최다 관중기록으로, 상반기 시즌 통계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인천은 한국야구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인천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야구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인천야구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2년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삼미 슈퍼스타즈가 창단한 이래 연고팀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으며, 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시민들은 인천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는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다. 선수들이 불꽃같은 홈런포를 날리면 열렬히 환호했으며, 눈물을 떨굴 때면 이름을 힘껏 외치며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인천시민의 한결같은 믿음에 빛나는 경기로 보답한 SK 와이번스. 와이번스는 2000년 창단 이래 차근차근 정상을 향해 걸어왔다. 첫 시즌에서는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2007년 상반기 시즌을 마친 현재 46승 30패 5무의 기록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물론 나날이 발전



→ 문학야구장 가는 길

대중교통 : 인천시내버스 이용시 4·6·13·27·63·64번 버스를 타고 문학경기장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에서 하차
자 가 용 : 제 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문학C로 나오면 바로 문학경기장
문 의 : SK 와이번스 ☎ 455-2600



하는 경기력 때문에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다. 와이번스는 시민들에게 연고팀으로서 믿음을 주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스포테인먼트를 추구하며 팬 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그래서 팀의 캐치프레이즈도 'Fan First! Happy Baseball!' 이다.

구도(球道) 인천. 그동안 인천의 야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팀이 바뀌고 해체되었으며, 떠난 선수도 있고 다시 돌아온 선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인천의 명예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와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이다. 2007년 인천의 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희망차다. 선수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기적에 박수를 보내며 나머지 시즌을 기약하자. 인천야구의 영광을 되찾은 자랑스러운 와이번스, 위풍당당 그들이 대한민국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야구의 새 문화를 열다

2002년, 인천의 야구팬들은 시즌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SK 와이번스의 홈구장인 문학야구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인천문학경기장과 함께 신축된 문학야구장은 메이저리그 구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4만1천901㎡의 면적에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 경기장은 3만500여명을 수용할 만큼 규모가 크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설치된 외야 이원화 전광판은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까지도 고스란히 느끼게 하며, 스카이박스와 스포츠카페는 경기를 좀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유아방과 장애인 전용 좌석 등도 찾는 이의 편의를 더 한다.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내야 지붕, 천연잔디로 가꾼 최적의 그라운드,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장하는 최첨단 투수볼펜 등도 문학야구장의 자랑거리다. 보는 것을 넘어 즐기는 야구로 야구문화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문학야구장,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꿈의 구장' 이다.



경기장 이용 Check Point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극적인 반전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 야구장에 가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저 멀리 사라지고 감동과 환희가 밀려온다. 삶에 활력소가 되어 줄 야구장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아본다.

1.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중앙본부석에 앉으면 경기를 현장감 있게 관람 할 수 있고, 1루 3구역과 3루 21구역은 응원단상이 있어 경기와 함께 응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스카이박스에서는 음식을 즐기며 여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스카이박스는 연간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료는 700만원. 판매되지 않은 스카이박스는 1일권으로 판매하고 비용은 1실당 20만원이다. 1실에 14명까지 입실할 수 있으므로 모임 장소로 활용해도 좋다. 스카이박스 예약 ☎ 455-2621, 2622

2. 경기관람도 식후경

구장 내에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매점이 여럿있다. 가격은 김밥이 2천원, 음료수가 1천원 정도. 특히 최근 문을 연 시정순대는 도원야구장 옆 시정순대집의 맛갈스러운 맛을 그대로 옮겨와 인기가 높다. 순대가격은 8천원에서 1만5천원. 1층 3루 지정석 출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시정순대 ☎ 467-3050

3. 할인 혜택을 챙겨라

SK Sports 카드를 소지하면 내야석과 의자지정석의 관람료가 1천원, 탁자지정석은 2천원이 할인된다. 또 SK텔레콤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면 내야석이 50% 할인되며 VIP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4. 야구놀이터, 와이번스랜드

지난 4월 SK 와이번스가 야구팬을 위해 마련한 신개념의 야구 놀이시설. 환영의 장, 만남의 장, 유희의 장, 체험의 장의 테마로 구성된다.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 등이 전시되며 이를 직접 입어 볼 수도 있다. 또 야구를 테마로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직접 공을 던지며 야구를 즐길 수 있다. 와이번스랜드는 1루 1, 2층 복도에 자리하며 경기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Special Interview | SK 와이번스 김경기 코치

인천의 자존심, 그의 신화는 계속 된다



고 4년 후인 1998년, 인천은 그토록 바라던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쥔다.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매 순간 인천의 프로야구사가 새로 쓰였다. 하지만 2000년 SK 와이번스가 인천의 새로운 구단이 되고, 인천팀이었던 현대가

"흥런! 흥런! 김경기 선수 흥런입니다!" 1994년 태평양과 한화의 플레이오프 3차전,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했고 김경기 선수가 그라운드에 섰다. 인천의 눈과 귀가 한 사나이에게로 쏠려있던 그때, 탁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백스크린 너머로 날아갔다. 심장을 두드리는 흥분,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함, 시민들은 열광했다. 그의 흥런 한방으로 인천이 프로야구 역사 1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것이다. 그리고

연고지를 옮기면서 김경기도 구단과 함께 인천을 떠나게 된다.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인천이 술렁이던 그때, 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김경기의 귀환이었다. 경기장에는 '인천의 자존심, 김경기를 고향의 품으로' 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결국 인천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김경기는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인천으로 복귀했다.

인천야구의 대부 삼미 슈퍼스타즈 김진영 감독의 아들로 뱃속까지 야구인이었던 김경기. 탄탄한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하위권을 맴돌던 인천야구를 일으켜 세운 인천의 간판스타. 그러던 그가 2002년 불현듯 선수의 길을 접었을 때, 팬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의 코치로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신화는 계속된다.

"인천은 나의 팀이자, 나의 고향이다. 한번도 인천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뒤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먼 훗날까지도, 그렇게 '인천의 자존심' 김경기는 우리 가슴에 찬란한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World Best City ‘인천’

2020년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 우리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선포식’을 통해 동북아 허브도시를 뛰어 넘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쾌적한 도시환경 즉, 어메니티(Amenity)가 강화된 매력 넘치는 도시, 누구나 찾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70만 시민이 함께라면 꿈은 현실이 된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동북아 허브를 넘어, 세계 일류 도시로

“인천에 살면 명품도시를 누릴 것이다” 민선 4기 취임 1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안상수 시장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안 시장의 목소리는 확산에 차 있었으며 당당한 의기가 넘쳤다.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2007년을 명품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2020년까지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어메니티(Amenity)가 강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발전을 이룬 도시, 누구나 찾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 인천.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다

그렇다면 세계 일류 명품도시란 무엇인가. 명품도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여건을 제공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모

노클 잡지가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한 결과 독일의 뮌헨이 1위를 차지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실업률과 범죄율이 낮으며, 기반시설 투자가 활발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뮌헨 다음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이 그 뒤로는 스위스 취리히, 일본 도쿄, 오스트리아의 빈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이 밖에 핀란드 헬싱키, 호주 시드니,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호놀룰루,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각각 10위 안에 들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 기준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자연과의 접근성, 낮은 범죄율, 높은 교육 수준, 인종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의 포용력 등이 고려됐다. 특히 국제통신과 공항 등 도시의 국제화 정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내 최초로 영어자유도시를 선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우리시는 세계 일류의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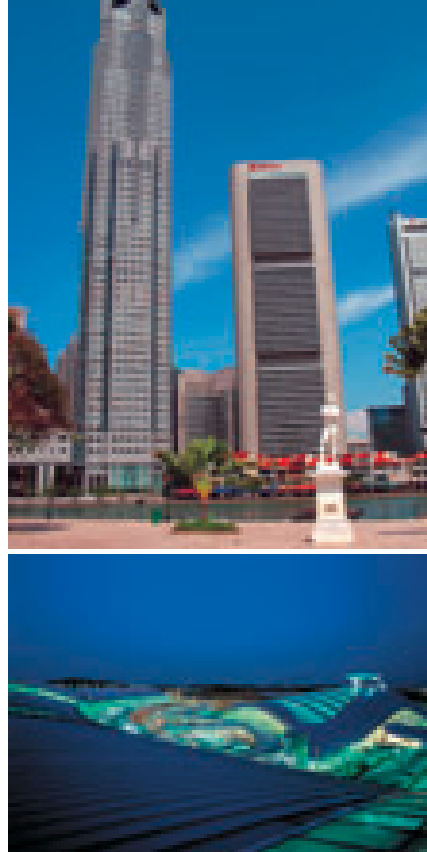
우리시는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일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선포식을 갖고 명품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2007년을 명품도시 원년으로 삼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리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문화 시민운동을 정착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등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에는 품격있는 문화도시와 국제 스포츠의 메카로서 공히 자리매김해 명품도시로의 진입을 꾀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도시공간구조

를 재편하며 영어자유화를 정착해, 세계 10대 도시 수준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시는 명품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에 8조4천억원, 도시환경 조성에 1조3천700억원, 시민의식 개혁에 3천800억원, 명품브랜드 개발에 9천100억원 등 총 11조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시민의식 함양, 고품격 인프라 구축, 명품브랜드 개발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워

밀고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통·건설, 복지·보건, 환경·녹지, 주거, 교육, 도시계획, 문화·예술·체육, 시민의식, 지역경제, 공공적 측면 등과 관련해 10대 전략과제를 세워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인천의 비전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270만 시민이 힘을 모을 때다.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저력있는 도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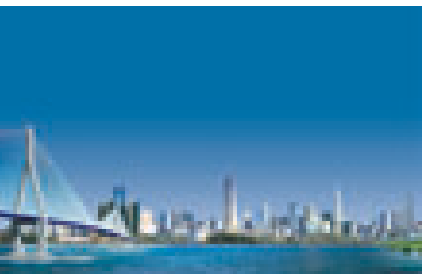


세계 일류 명품도시 추진계획

년도별 계획	추진 내용
2007 명품도시 원년	명품도시 선포 및 추진체계 구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민협의회 구성
2009 명품도시 기반 구축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문화 정착, 시민운동 확산, 국제적 위상 강화
2014 명품도시 진입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수준 높은 생활환경 조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국제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2020 세계 10대 명품도시 위상 정립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 완료 도시공간구조 재편, 영어자유화 정착, 국제적인 인천시민 육성

명품도시 조성 4대 핵심전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고품격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및 인간중심 교통문화 정착 - 자연과 소통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 친근하면서도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조 - 에너지 절약형 도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비즈니스 물류 중심도시 구현 - 최첨단 지식·학술연구단지 조성 - 세계적 교육·의료서비스 체계 정착 - U-City 클러스터 구축
선진시민의식 함양	명품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체성 고취 -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준법질서 및 기조질서 생활화 - 자립형 복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자유화 정착, 세계 일류 인천인 육성 - 창의적인 문화·예술 조성 -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도시 건설 - 국제적인 관광·스포츠 메카 건설



열대 夜속 달빛 휴식

장마가 끝나면서 찜통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밤잠을 설치게 한다. ‘열대야’는 한낮에 달아 오른 지표면의 열기가 해가 진 뒤에도 식지 않아 밤에도 25℃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누워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밤. 에어컨을 틀고 잠을 청해도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한다. 대형 마트나 영화관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출석 도장을 찍을 순 없다. 열대야를 피해 ‘밤 피서’ 갈만한 곳은 없을까.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월미도 밤풍경

밤하늘을 향한 문어의 물줄기 연안부두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등장하는 연안부두는 진한 갯내음과 뱃고동 소리가 어우러진 바다의 출입구. 사시사철 어느 때 가더라도 섬으로 향하는 설렘이 절로 솟는 곳이다.

땀별을 피해 해거름에 해양광장으로 나서보자. 널따란 나무데크로 만든 해양광장은 연안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이다. 데크 위 나무벤치에 앉아 만선의 꿈을 꾸고 있는 어선, 물살을 가르며 오고가는 여객선, 공중을 나는 갈매기의 날개짓 등 바다의 한가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루 종일 이글거렸던 태양이 안식을 위해 바다 속으로 쏙 들어가면 순식간에 바다는 검푸르게 변하고 등대는 환한 불을 밝힌다. 이어 해양광장 앞에 있는 초대형 분수는 음악에 맞춰 밤하늘을 향해 물줄기를 시원하게 뿜어낸다. 총길이 90m, 너비 34m에 달하는 음악분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패류인 가리비를 비롯해 문어, 해초, 갈매기 등 7개의 테마로 꾸며져 있다. 조명이 음악에 따라 색깔과 밝기가 달라져 환상적인 여름 항구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Tip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유람선은 선셋 디너크루즈를 운영한다. 연안부두를 출발해 인천 앞바다를 유람하는 하모니호 선상에서 밤 10시까지 노을과 야경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882-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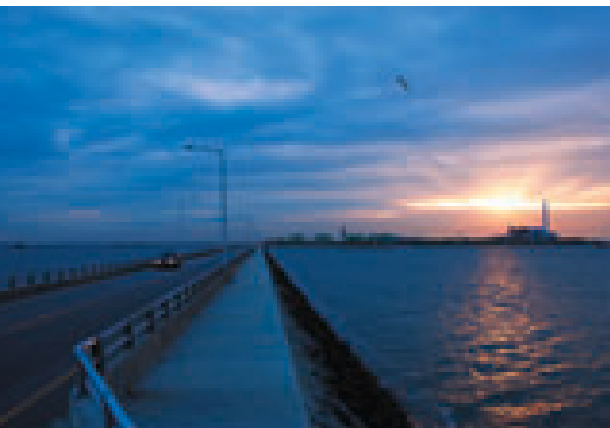
Tip

해발 108m의 월미산에는 전망대가 우뚝 솟아 있다. 그 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 망거미가 내려앉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색빛을 발하는 전망대의 탁트인 맨 꼭대기층에 오르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시원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다. 밤 10시까지 개장 ☎ 765-4131~3

거침없는 바닷바람에 체온 뚝 월미도

월미도는 밤마다 예쁘게 ‘화장’을 한다. 바다와 어우러진 조명기둥 ‘빛의 열주(列柱)’가 월미도 바다를 환하게 비춘다. 문화의 거리 350m 구간에 설치된 높이 10m, 직경 80cm 크기의 15개 빛기둥은 빛의 전사들이 사열하듯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지어 서 있다. 마치 하늘에서 빛을 받아 물과 땅으로 내려주는 듯한 100m짜리 오색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는 해풍에 이리저리 춤추며 더위를 씻어 준다.

문화의 거리 끝,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와 빨간 꼬마 등대가 서있는 친수공간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다리 쪽 뻗고 바위 위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원하다.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젊음의 해방구’ 놀이동산에서는 밤늦도록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바이킹과 아폴로 디스코 등 아찔한 놀이기구에 몸을 실으면 ‘더위야(夜), 물렸거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Tip

송도자원환경센터에는 시민을 위한 종합스포츠시설이 있다. 실내수영장, 헬스장, 잠수풀,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스포츠센터 앞에는 한반도를 닮은 인공호수와 산책로가 있어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여유롭게 식힐 수 있다.

바람의 여신과 함께 달린다

송도자원환경센터 하이웨이

무더위로 잠은 오지 않고 땀똥땀똥 날밤을 새울 것 같으면 차라리 거침없이 달려보자. 연수구 해안도로에서 송도 LNG기지로 향하는 8km 2차선 도로는 숨겨진 명소다. 예전에는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했으나 송도자원환경센터가 개장되면서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도로는 바다를 가르면서 쪽 뻗어있다. 드라이브도 좋지만 도로 중간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주차시켜 놓고 바다와 맞서는 것도 좋다. 바다를 향하면 어느새 ‘바람의 여신’이 곁에 와있을 것이다. 영흥도와 선재도를 끼고 돌아 온 찬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한순간에 씻어 준다.

탁트인 조망도 좋다. 하루하루 그 모습이 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검푸른 바다에 환한 불빛을 내비추는 오이도와 길게 늘어선 시화방조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늘게 실눈을 뜨면 멀리 영흥대교의 불빛도 스며든다.



Tip

인근 송도유원지에 자동차 야외극장이 있어 청량산과 앞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오후 8시20분부터 새벽1시까지 연속해서 영화를 상영한다. ☎ 831-5139

도시 한켠 심포 같은 ‘숲섬’ 아암도 해양공원

송도 해안도로 한쪽에 붙어 있는 아암도는 도시 한켠 심포 같은 ‘숲섬’이다. 도심 속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동네 바닷가이자 바다출구이다. 1.2km 산책로를 거닐면서 잠자리 떼처럼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도크에 정박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외항선의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온다. 요즘은 인천대교의 건설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바다 쪽에는 150m 길이의 갯벌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해가 지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산책이나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다.

문화의 향기 살살 분다 야외무대

열대야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야외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껴보자. 끈적 끈적한 여름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불쾌지수는 낮아지고 상쾌지수가 오른다. 매주 금·토요일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는 노천원형극장에서는 별빛과 달빛을 조명삼고 폴베레소리를 음향삼아 음악회와 연극 등이 펼쳐진다. 🍷

Tip

8월 18일(토) 오후7시 ‘시립무용단 공연’, 8월 24일(금) 오후 7시30분 ‘세상을 여는 소리 타타타’ 8월 25일(토) 오후7시 ‘시립극단(청춘) 공연’ 8월 31일(금) 오후7시30분 ‘밸리댄스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 420-2020



열대야 숙면 10계명

1.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기상한다.
2. 매일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되 잠자기 직전은 피한다.
3.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다.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 한다.
4.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들어 있는 음료나 술을 피한다.
5.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는다. 침실을 떠나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잠을 청한다.
6. 낮잠은 자지 않는다. 전날 밤 잠을 설쳤어도 30분 이상의 낮잠은 피한다.
7. 식사시간도 일정하게, 특히 저녁의 과식은 피한다.
8. 저녁에는 과다한 음료나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수박 등) 섭취를 줄인다.
9.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10. 시계를 침대 밑에 넣어두거나 덮어둔다.





더위야 물렸거라... 공룡 납신다

타임머신을 타고 2억년 전 쥐라기와 백악기 시대로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 꿈과 환상의 모험 여행을 떠나게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초특급 공룡박람회와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곤충학습체험전이 인천 문학경기장에 찾아왔다.

글 · 김애란 남동마당 기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오싹 오싹 ... 더위 삼키는 공룡 출현 **쥐라기 어드벤처 2007**

금방이라도 살아서 튀어나올 듯한 기괴한 울부짖음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온다. 문학경기장 북문 인근의 쥐라기 어드벤처 특별야외전시장은 테마별로 공룡전시관과 자연사관, 3D입체영상관, 야외체험학습장과 볼풀놀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피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에 출연했던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40여점의 움직이는 로봇공룡과 실제의 화석공룡 등 세계 최정상급 전시물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두운 조명과 음습함을 첫 만남으로 공룡 전시관은 초대형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실물크기 발모형이 시선을 잡는

다. 외국에서 발견된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돼 있는 이곳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실제 화석인 알베르토사우루스 골격과 티라노사우루스의 대퇴부 화석. 세계에서 하나뿐인 이 대퇴부 화석은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인데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하여 촉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행운을 열어 두었다.

달려들 듯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특수 제작된 로봇공룡 23점과 해룡 14점을 포함하여 공룡화석 60여점을 2천500㎡의 공간에 전시하고, 전시관 곳곳에 도우미를 배치해 관람객이 좀더 쉽게 공룡의 탄생에서 멸종까지 공룡진화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1천600㎡ 규모의 자연사관은 백악기까지 존재한 암모나이트 화석을 비롯해 거대한 식인조개, 앵무조개, 쌀의 10분



의 1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조개인 마이크로셀 등 희귀패류 2천여점이 전시돼 있다. 또한 화려한 색채와 모양의 산호 1천여점, 손가락처럼 생긴 핑거불가사리 등 희귀화석과 자연사광물, 어패류, 곤충, 식물이 수천점 전시되어 자연사 박물관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다.

과거로의 시공 여행은 3D입체영상관에서도 이루어진다. 소년 조와 로봇 앤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돌아가 모험을 펼치는 15분짜리 아이맥스 입체영화를 상영한다. 3D안경을 끼고 관람하는 <디아노 어드벤처>는 첨단 영상장비와 입체 사운드가 잘 어우러져 생동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감동과 흥분을 달래주는 야외 체험관은 모종삽과 붓으로 모래 속에 숨어있는 공룡 뼈 모형을 직접 발굴할 수 있어 고고학자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이밖에 열쇠고리 만들기와 에어바운스볼풀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과거의 시간 여행은 2시간 남짓으로 아쉽게 끝나지만 가슴에 담긴 짜릿한 감동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진다.



■ **'쥐라기 어드벤처 2007'**은 인천문학경기장 특별전시장에서 오는 10월 30일까지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이다. 금·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야간개장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3천원, 중고생 1만1천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1만원이며 단체는 할인된다. 문의 ☎ 1544-0659

몸으로 우는 곤충의 소리가 보여요 **세계곤충학습 체험전**



소리체험관, 로즈헤어종의 독거미와 극동전갈, 그리고 비단구렁이를 목에 두르는 아찔한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파충류전시관 등이 있다.

관찰한 곤충을 물부치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는 곤충만들기관, 자연속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하는 영상관,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등 2천여 마리를 표본으로 전시한 곤충표본관, 수서곤충체험관 등으로 꾸며진 오감체험존, 그리고 살아있는 곤충들의 다양한 묘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곤충이벤트존 등도 마련돼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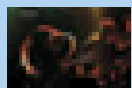


살아 있는 곤충의 신비한 세상이 문학월드컵경기장 매소홀에 문을 열었다. 오는 8월26일까지 열리는 세계곤충학습체험전은 곤충의 세계를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관찰체험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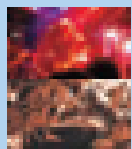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희귀한 나비와 나비의 일생을 볼 수 있는 나비관, 곤충들의 다양한 소리를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 **세계곤충학습 체험전**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중무휴이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어린이 8천원이다. 문의 ☎ 1566-1634

한중문화관 Summer Rock Festival



8월 4일(토) 오후 2시 프리마켓과 함께하는 젊은 열기
보컬 김두현, 기타 김덕성, 베이스 신준기, 드럼 홍석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프리마켓은 '독신가' '여행을 떠나고' '이모송' '10Minute' 등 유쾌한 락큰롤을 연주한다.



8월 11일(토) 오후 2시 B-boy와 인천연합밴드의 조우
강렬한 퍼커션의 비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풋워크, 그리고 피를 끓게 하는 환호 비보이 젊은이들의 춤의 완성을 향한 구도자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 밴드들이 모여 '패지나칭칭나네' '벳노레' 등 우리나라의 민요를 새롭게 편곡 하여 퓨전국악으로 연주하여 'La bamba' 등 귀에 익은 추억의 율동팝이나 가요 등을 새롭게 편곡해 들려준다.



8월 18일(토) 오후 2시 여성 록 밴드공연 '클릭스(Clerks)'
'클릭스'는 정월들이란 뜻으로 케빈 스미스의 영화 'Clerks'에서 이름을 따왔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신나는 Rock'을 모토로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Good for nothing', '노노노노', 'Happy my birthday' 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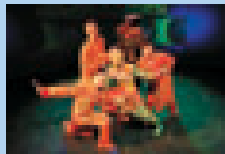
경쾌복고 미쓰고밴드



Miss와 옛 (古)가 자가 합쳐져 '추억을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의 복고 밴드이다. 대학가요제 등에서 수상한 밴드로 7080세대는 물론이고 젊은층에게도 각광받는 독특한 그룹이다. 밴드명에서도 알 수 있듯 소녀시대, 워터루 등 오래전 우리가 즐겨들던 추억속의 명곡들을 신 세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한다.

일시 _ 8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60-3455~6, www.iecs.go.kr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 드래곤



국내 첫 번째 어린이영어연극으로 호주출신 로저 린드가 연출했고 무대미술은 용인대 교수 이태섭 씨가 맡는 등 국내외 정상적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다. 우주에서 알 채로 떨어진 아가공이 자신과 똑같은 친구를 찾아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겪는 모험을 다루고 있다.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배경이 움직이는 3차원 입체영상을 비롯해 서정적인 음악과 섬세한 인형연기, 친근하고 다양한 캐릭터 등이 특징이다. 자막은 제공되지 않지만 쉬운 대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편안하게 관람 할 수 있다.

일시 _ 8월 24일(금) ~ 26일(일) 오후 1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20,000원
문의 _ 라트 어린이극장 ☎ 02-5600-999, www.LatiCT.com

어린이 에듀 뮤지컬 바스티앵&바스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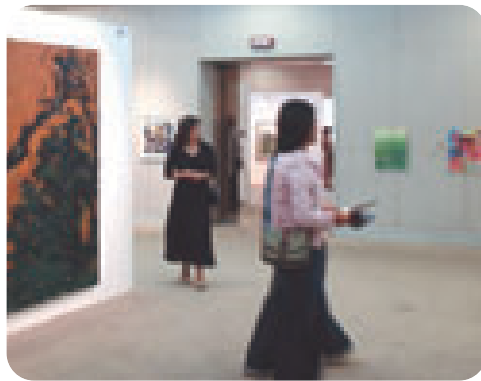
모차르트가 12세에 쓴 첫 오페라를 어린이 눈높이 맞게 각색한 뮤지컬로 독일 어린이 전문극단 '웅'과 한국 '쥬스'극단의 합작품이다. 도시 여자친구들에게 반해 사랑하는 바스티앵을 소환하라는 양치기소년 바스티앵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마술사 코올라 아저씨와 양들이 함께 나서 바스티앵을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일시 _ 8월 10일(금) ~ 12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티켓 _ A석 25,000원 / B석 20,000원
문의 _ ㈜쥬스 엔터테인먼트 ☎ 02-558-161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월		1 (사)미추홀아트센터 창립20주년 기념축하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5천원 ☎ 518-1511	2 2007 여름방학 청소년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인천기타오케스트라 ☎ 513-7087	3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5만원, 3만원 인천8아츠 ☎ 420-2027 제7회 팜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 7천원,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4 제10회 인천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7천원 / ☎ 017-327-2401 록그룹 프리마켓과 함께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5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과서 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7천원 인음예술단 ☎ 888-0808
6	7 인천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5천원 ☎ 467-8477	8	9	10 어린이 유폐라 바스티앵 & 바스티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만5천원, 2만원 쥬스엔터테인먼트 ☎ 02-558-1617 ☎ 02-558-1617	11 어린이 유폐라 바스티앵 & 바스티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만5천원, 2만원 쥬스엔터테인먼트 ☎ 02-558-1617 비보이와 인천연합밴드의 조우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12 APOA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2만원, 1만원 / 인천8아츠 ☎ 420-2027 어린이 유폐라 바스티앵 & 바스티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2만5천원, 2만원 쥬스엔터테인먼트 ☎ 02-558-1617 인디와 재즈의 만남 속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3시 / 무료 / ☎ 203-8116
13	14 제11회 인천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 1588-7890	15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5시 / 1만2천원 에이원예술기획 / ☎ 011-620-8769 청소년 재즈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세렌딕JMA ☎ 432-9839	16 버리튼 우주호와 뮤직프렌즈가 함께하는 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1만2천원 월드뮤직 ☎ 011-9993-0971 2007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특선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1만원 리어석기타오케스트라 ☎ 765-7829	17 2007 인천 재즈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3만원, 2만원 인천8아츠 ☎ 420-2027 청소년을 위한 <벨로 앙상블>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만5천원 / ☎ 506-5995	18 2007 인천 재즈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3만원, 2만원 인천8아츠 ☎ 420-2027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록그룹 클릭스와 함께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19 해설이 있는 클래식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1만2천원 아트노우 ☎ 031-395-2971 청소년 교류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1만1천원, 8천원 인천청소년교향악단 / ☎ 438-6040 천주교인천교구 청소년밴드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6시 / 무료 / ☎ 765-6964
20	21 최한원교수와 함께하는 바이올린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 / 1만5천원, 1만원 인음예술단 ☎ 011-301-2898	22	23 코믹마살아츠 <점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4만원, 3만원 ☎ 429-2972 인천음악문화원 청소년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9-0248	24 코믹마살아츠 <점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4만원, 3만원 / ☎ 429-2972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드래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4시 / 2만원 라트어린이극장 ☎ 02-560-0999 김도향, 37년 음악인생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3만원 / ☎ 505-5995	25 코믹마살아츠 <점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4만원, 3만원 / ☎ 429-2972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드래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4시 / 2만원 라트어린이극장 ☎ 02-560-0999 토요상설무대 <뮤지컬 난센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26 코믹마살아츠 <점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 4만원, 3만원 ☎ 429-2972 어린이 영어연극 <리틀드래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1시, 4시 / 2만 라트어린이극장 ☎ 02-560-0999
27	28 오즈의 마법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오후 4시 / 1만2천원 포마세상 ☎ 572-4281	29 시립무용단 춤마당 흥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 420-2788 오즈의 마법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싸리재홀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1만2천원 / 포마세상 ☎ 572-4281	30 인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5천원 ☎ 420-2781	31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만5천원~2만원 / ☎ 440-4012 글로벌예술무대 <벨리댄스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9월 1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1만5천원~2만원 ☎ 440-4012	2 세계오페라페스티벌 비제 「카르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1만5천원~2만원 ☎ 440-4012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인간, 바다, 바람 Crossway Incheon



아트페어는 작가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비평과 평가를 받아 유통과 홍보의 기회를 갖고 관람객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견본시장이다. 문화 선진국에서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들이 많이 개최돼 미술의 국제적 흐름을 보여주고 미술 작품 유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07 인천아트페어는 비상사의 욕구가 생동하는 인천 미술을 보여주는 「인간·바다·바람 - Crossway Incheon」이란 주제로 중국작가 2명, 일본작가 1명, 그리고 국내작가 65명이 부스 전에 참가한다. 또한 인천미술 활성화와 유망작가 발굴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신진작가공모전, 한국현대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원로작가들을 초대해 현대미술초대전도 마련한다.
(문의 : 인천아트페어운영위원장 김혜선 ☎ 017-334-3760)

■ 인천아트페어 본전시

외부작가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개인전 경력이 있는 중견작가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엄선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 일 시 : 9월 1일(토) ~ 6일(목)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 선정인원 : 75명
- 전시형식 : 개인부스전

■ 특별전

55세 이상의 대표작가와 인천의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현대 미술초대전의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독특한 시각으로 대중에 다가서는 35세 이하의 차세대 유망 신진작가 17명의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 일 시 : 9월 1일(토) ~ 6일(목)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선정인원 : 현대미술초대전 20명, 차세대공모전 17명

이달의 展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천 역사·문화탐방展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개점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전시로서 청소년, 시민, 작가들이 참여하는 역사, 문화, 삶의 체험 행사이다. 이번 전시는 6박 7일 동안의 '인천 바로알기 중주'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 참여 학생들이 제작한 사진, 그림, 탐방기 등을 비롯하여 인천의 역사, 문화 자료들로 구성된다.

8월 25일(토) ~ 9월 3일(월) / 인천신세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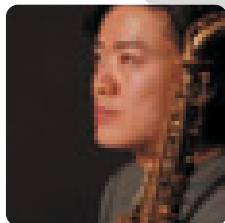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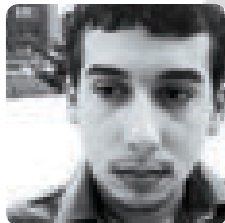
7월 31일 ~ 8월 9일 : '철수야 놀~자' 전 / 신세계갤러리
8월 3일 ~ 9일 : 제3회 인천시서예전람회 / 인천문예회관 대·중앙전시실
8월 3일 ~ 9일 : 제7회 원묵회 한국화전 / 인천문예회관 소전시실
8월 3일 ~ 9일 : 디지털 서양미술체험전 / 인천문예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10일 ~ 16일 : 김대겸 도예전 / 신세계갤러리
8월 10일 ~ 16일 : 환경미술회화제 / 인천문예회관 대전시실
8월 10일 ~ 16일 : 제9회 그림벗전 / 인천문예회관 중앙전시실
8월 10일 ~ 16일 : 제3회 차경진 조각개인전 / 인천문예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10일 ~ 23일 : 인천수채화협회회원전 / 인천문예회관 소전시실
8월 17일 ~ 23일 : 민은숙 서양화전 / 신세계갤러리
8월 17일 ~ 23일 : 인터넷 서예문인화전 / 인천문예회관 대·중앙전시실
8월 17일 ~ 23일 : 예은회 정기전 / 인천문예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24일 ~ 30일 : 인천서각대전 / 인천문예회관 대·중앙전시실
8월 24일 ~ 30일 : 제9회 미객전 / 인천문예회관 소전시실
8월 24일 ~ 30일 : 인천서예학술연구회전 / 인천문예회관 미추홀전시실

JAZZ

살아있는 재즈 거장들이 펼치는 Incheon Jazz Festival

- 일시 8월 17일(금) 오후 8시, 18일(토) 오후 7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 문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0~2
인천&아츠 사무국
☎ 420-2027~8, 02-3446-0624
www.incheonarts.com



인천&아츠가 매년 여름 야심차게 준비하는 '인천 재즈페스티벌'이 올해에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다. 올해에는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는 에그베르토 지스몬티, 곤잘로 루발카바, 찰리 헤이든이 인천 재즈페스티벌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 재즈의 미래를 빛낼 두 젊은 재즈 스타 정선과 신예원이 이끄는 선 & 예원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도 이번 인천 재즈페스티벌 무대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

에그베르토 지스몬티는 '생존하는 브라질 최고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라 불리는 천재적인 재즈계의 거장이다. 유럽음악과 브라질음악의 장점들을 융합시키고 클래식과 재즈의 세계를 넘나들며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독특한 음악을 구사하는 그는 이미 첼리스트 요요마가 취임한 음반 〈Obrigado Brazil〉를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2002년에 내한하여 국내 재즈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곤잘로 루발카바와 찰리 헤이든의 환상적인 듀오는 둘이 함께 작업한 음반 〈Nocturne〉이 2002년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그 완성도를 입증한 바 있다. 쿠바가 배출한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는 허비 행콕이 "그의 연주를 보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했을만큼 뛰어난 기교를 자랑한다. 재즈계의 가장 존경 받는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 찰리 헤이든은 '재즈계의 혁명가'라 불릴 만큼 모험적인 연주를 한다. 두 차례의 그래미상에 빛나는 그의 음악은 인생의 심오한 감성을 반영하면서 깊고 풍부한 울림을 전달한다는 평을 받고있다.

또한 기타리스트 정선과 보컬리스트 신예원이 이끄는 15인조 재즈오케스트라가 함께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6년 인천 재즈페스티벌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려주었던 이들이 함께 결성한 선&예원 재즈오케스트라는 이미 뉴욕의 재즈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7 Jazz Workshop 재즈워크숍

이번 인천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로리 스투어트, 아리 호너, 빌리 하퍼, 그레고리 존스, 제이슨 린드너 등 뉴욕 New School University의 재즈학과 교수진과 함께 하는 재즈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New School University의 재즈학과는 현대 재즈음악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어나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력있는 교수진과 함께하는 이번 재즈워크숍은 프로 재즈연주자와 열정적인 아마추어 연주자 모두에게 그들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기간 : 8월 17일(금)~18일(토)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마살아츠 퍼포먼스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 일시 : 8월 23일(목) ~ 26일(일)
23, 24일 오후 8시 / 25일 오후 3시, 7시 / 26일 오후 2시, 6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티켓 : 4만원 / 3만원
- 문의 : ☎ 429-2972

〈점프〉는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자 기획된 난버벌 퍼포먼스 형식의 작품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품으로 2003년 7월 초연한 이후로 끊임없이 사랑 받아온 〈점프〉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2년 연속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판매순위 1위,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피콕극장 전회 매진 등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택견을 비롯한 동양무술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을 혼합하여 화려하면서도 짜릿한 마살아츠(Martial Arts)를 선보인다.

〈점프〉는 모두가 익숙한 소재인 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톡톡튀며 개성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시트콤을 보는 듯 코믹한 설정과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탄탄한 드라마 구성과 곳곳에 넘쳐나는 코미디는 남녀노소, 국적과 언어를 넘어 관객들을 포복절도하는 웃음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2007 Asia Philharmonic Orchestra Academy Concert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단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들의 음악아카데미 콘서트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사단조, KV.550과 마술피리 K.620이 연주된다.

- 일시 : 8월 12일(일) 오후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2만원, S석 1만원
- 문의 : 인천&아츠사무소 사무국 ☎ 420-2027





최첨단 자기부상열차, 인천을 달린다

2012년, 인천에 자기부상열차가 시범운행된다. 시범운행을 마친 후에는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 운행될 전망이다. 공항이 어우러진 최첨단 교통도시를 힘차게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처럼,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향한 인천의 꿈도 더 빠르게 더 멀리 뻗어갈 것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로템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자기부상열차 우선 협상대상 도시로 우리시를 선정했다. 자기부상열차란 자기적인 힘을 이용해 차량을 레일에서 일정한 높이로 띄우고 전진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의 열차.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운영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운행을 마치면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운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우리시는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효율성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기부상열차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됐다.

우리시는 인천에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되도록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270만 시민의 의지를 집결시켰다. 먼저 건설교통부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착수한 2006년 영종·용유지역을 제안노선으로 해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 선정에 건의

했으며, 시 교통기획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자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시범노선 유치에 만전을 기울였다. 인천시의회도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해 유치활동에 힘을 실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도 큰 역할을 했다. 시민들은 우리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는 총 4천500억원이 투입되며, 2008년 설계를 마치고 2009년 노선 건설에 착수해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리시가 구상하는 시범노선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공항도시 내 총 6.1km 구간으로 정거장 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된다.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를 출발해 국제업무지역, 워터파크, 용유역 등 6개 정거장을 경유하게 된다. 시범노선과 연계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은 용유역에서 국제업무2단지까지 9.7km로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장노선이 완공되면 국제업무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용유·무의관광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단계 사업은 영종공항도시를 순환하는 37.4km 구간으로 서울 및 인천의 철도노선과 연결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향후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 4개 기관을 주축으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범노선 건설비용의 6%를 지원하고, 인허가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시공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노선 건설비용의 25%와 전체 용지를 지원하며, 향후 시범노선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반업무를 맡게 된다.

최첨단 교통시스템인 자기부상열차가 운행하면 생산유발 효과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천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1만3천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리시는 내다보고 있다. 영종공항도시의 교통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자유구역과 U-City 사업의 조화를 이끌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바다와 연결되는 신교통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고 관광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의 허브로 도약하는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에 널리 알려,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연장 : 6.1km | 정거장 : 6개소 | 차량기지 : 1개소
노선 :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 ~ IBC1 ~ 용유

바퀴없이 달린다, 자기부상열차

친환경적인 최첨단 교통시설

자기부상열차란 바퀴없이 자석의 힘으로 부상하고 선형전동기(Linear Motor)의 추진력으로 달리는 열차. 크게 친환경성, 탁월한 주행성능, 안전성, 저렴한 운영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자기부상열차는 바퀴식 열차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인체에 유해한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선형전동기로 추진력을 얻으므로 급경사와 급커브길을 달리는 것을 비롯해 주행 능력이 탁월하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열차 하부의 대차 구조가 레일을 완전히 감싸므로 전복이나 탈선의 우려가 없다. 또 바퀴 대신 전자석으로 접촉하지 않고 주행하므로 각종 기계적 결합에서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주행바퀴가 없고 마모되는 부위가 적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국산화율이 97% 수준에 이르러 유지·보수품을 구입하기도 쉽다.



나고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세계 최초로 영업운행을 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일본의 리니모(Linimo)다. 2005년 등장한 리니모는 현재 애지현 국제박람회장과 나고야 후지오카 역을 연결하는 8.9km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착수했으며, 1993년 대전 엑스포박람회에서 전시·운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약 5년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제열차를 개발하고 2003년 자동운전이 가능한 도시형 시제열차를 개발해 시운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에 착수하고 몇 개월간의 시범노선 선정작업 끝에 2007년 우리시를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했다.

영어도시 조성 본격 추진



영어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지난 7월 23일 ‘영어자유로운 도시 인천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영어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우리시는 오는 2014년까지 7년간 21개 부문 85개 사업에 약 2천 3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어

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까지 전담기구 설립, 영어페스티벌 개최, 선도사업 시행 등 영어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2단계로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영어인프라 확충, 영어사용 인구 확대 등에 힘쓸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20년까지 영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영어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어도시 조성사업은 영어사용 환경조성, 영어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제고, 공공부분 혁신 및 영어도시 조성 선도 등 4개 핵심 분야로 진행한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73

인천에 U-City 건설

최첨단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U-City가 2017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개발지역에 건설된다.

우리시는 U-City건설을 위해 10년간 공공부문에 4천273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전시장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약 1천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고 U-City 홍보체험관, U-교통광장,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의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8공구 내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자가망을 구축해 다양한 U-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종·청라 지구는 개발계획에 맞춰 U-City 네트워크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인천세계도시엑스포, PM사업 보고회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PM보고회가 지난 7월 18일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 이흥구 고문, 이어령 고문 등 고문단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재정경제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 ☎ 440-7800



황해권 시·도지사협회의 개최

제2회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우리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황해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안상수 시장 등 5개 시·도지사는 황해권 발전을 위한 5개 항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5개 시·도연구원이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도지사들은 또 황해권 5개 시·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베이징과 톈진, 산둥성 등이 참여하는 환발해권 지역경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문의 | 시 기획관실 ☎ 440-2137



‘월드 베스트 100선 시책’ 발간

우리시가 세계 10대 도시 수준의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월드 베스트(World Best) 100선 시책’을 발굴해 책으로 발간했다.

시책은 공무원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우리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을 뒀야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그리고 삽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내용을 테마별로 분류해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도록 했다. 향후 관련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책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4

시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제3기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가 지난 7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한 제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80명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 향후 시민감사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군·구 종합감사를 비롯해 기동감사, 부분감사 등 감사진행 전 과정에 참여하고, 현장 조사시 함께 참여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된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35

인터넷신문 창간 2주년 간담회

인터넷신문 창간 2주년 기념 간담회 및 사이버 가족신문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7월 19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렸다. 안상수 시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시민기자, 각 군·구별 소식지 명예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5년 5월 창간한 인터넷신문 Incheon@news는 주 2회 시민들에게 인천의 소식을 전하며 시청홍보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인터넷신문의 시청홍보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족신문 공모전 시상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 440-2336



아프리카 공무원 방문

아프리카 15개국 고위 공무원 15명이 지난 6월 26일 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아프리카 공무원 행정발전과정’에서 연수중인 공무원들로, 자국의 행정관리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발전상 및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연수에 참가했다. 각국 대표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고 참가국 정부의 혁신 우수사례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연수일정을 통해, 최첨단 산업도시로 비상하는 인천의 비전을 확인하고 인천과 협력관계를 맺길 희망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4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협약식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협약식이 지난 7월 3일 시청 소상황실에서 있었다.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는 인천 남항 모래부두 일대의 재 비산 미세먼지(PM10)를 제거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가 지난 3월 환경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북항일대 주요도로 1사1도로 클린관리제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경우해운, 동원 등 우리시와 협약을 맺은 모래하역업체 9개사는 도로물청소를 통해 주요도로를 책임관리하게 된다. 한편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시행에 앞서 연안아파트 주민, 하역업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남항 모래부두 일대에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24

고품격 옥외광고 문화 조성

우리시가 명품도시 창출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우리시는 공인중개업협회, 음식점협회, 건축사협회와 민·관 공동협정을 체결해 옥외광고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인·허가시 옥외광고게시시설을 설계도면에 표기해 간판을 일정 위치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광고문화 의식을 고취시켜 고품격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440-3333



2009 SKAL 아시아총회 유치

우리시가 인천관광공사와 2009 제38차 SKAL 아시아총회를 유치했다. SKAL 아시아총회는 세계 90개국 관광인과 여행업계 중진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아시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방문의 해에 열릴 아시아 총회가 인천은 물론 아시아의 여행·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12년 SKAL 세계총회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41

굴현동 일대 시가지로 개발

계양구 굴현동 306일대 녹지 18만2천여㎡를 녹지와 주거지가 어우러진 시가지로 개발한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굴현동 주민들이 낸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토지이용 계획에 의하면 주거용지 58%, 공원 20.6%, 녹지 8.2%, 도로와 주차장 13.2%를 조성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주택 1천476가구에 인구 4천여명을 수용하는 새 시가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440-3342

인천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



2007 인천국제관광학술대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영종도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열렸다.

인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시와 한국관광학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안상수 시장,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 인천, 한반도의 신 성장동력과 관광산업'을 주제로 논문·제안서 140여편과 전문가 논문 20여편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안상수 시장은 한국관광 산업의 비전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학회로부터 관광진흥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4



캐나다 BC주 경제개발장관 방문

캐나다 BC주 콜린 한센(Colin Hansen) 경제개발부 장관 일행이 지난 7월 2일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과 콜린 한센 경제개발 부장관은 환담을 통해 사업 투자 유치, 자매결연 등 두 도시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을 홍보했다. 콜린 한센 경제개발부 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으로 문화, 관광, 무역 등 각 분야에 두 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인천시, LA와 양해각서 체결

우리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로스앤젤레스는 55만 제미교포가 거주하는 미국 서부의 중심도시.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 7일 LA시를 방문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Antonio Villarigosa) LA시장을 예방하고 국제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두 도시가 상호투자 및 상거래 활성화, 무역·관광·첨단기술 및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류를 증진하고, 인천시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LA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로봇랜드 인천유치 MOU 체결

로봇랜드 인천유치를 위한 사업용역결과 보고회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지난 7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박창규 시의회의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로봇산업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로봇시연회 등 로봇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시가 로봇랜드 유치에 성공해, 최첨단의 로봇 문화를 확산시키고 명실상부한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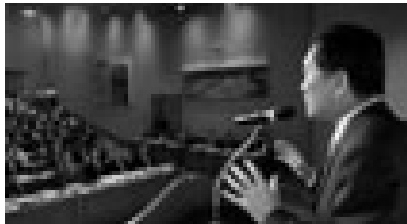


건설사 대표 초청 사업설명회

인천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건설사 대표 초청 사업설명회가 지난 6월 28일 송도 국제도시 갯벌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다.

안상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대표 25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안상수 시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균형사업 등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바이인천지원센터 ☎ 440-3293



인천 항공사 설립 자문위원 간담회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 관련 자문위원 간담회가 지난 7월 9일 시청 소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12명과 항만공항물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 배경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항공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 위촉하고, 지역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 및 투자전략, 국내·외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동북아 지역 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FLY Incheon Project) 추진에 기여했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5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상승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큰 폭으로 상승해 80만 TEU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2007년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총 77만 5천547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물동량인 64만6천 903TEU에 비해 19.9%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이라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인 160만TEU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항은 지난 7월 19일 최종 이사회 의결을 통해 런던금속거래소(LME·London Metal Exchange)의 공식항만으로 등록됐다. 우리나라로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372

제8회 인천여성대회 개최

제8회 인천여성대회가 제12회 여성주관을 맞아 지난 7월 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정무부시장과 박창규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여성단체장, 회원, 일반 여성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인천여성대회는 여성들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고 '참여하는 여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과 결의문 채택 등이 있었으며 홍일표 정무부시장의 여성상·평등부부상 등 유공자를 시상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12

인천지하철 2호선 계획안 확정

우리시는 201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남동구 인천대공원~서구 오류동·총길이 29.2km) 일부 구간의 고가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수정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의 고가 예정구간은 서구 오류지구~왕길 지하차도 2.3km와 백석초~공촌사거리 2.3km, 남동구 동부교육청~운연 차량기지 1.5km 등 총 6.1km로 결정됐다. 특히 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구간인 가정오거리~가좌IC 2.7km와 오류지구~검단사거리 구간 중 왕길지하차도 부근 400m는 지하로 건설하기로 했다.

문의 | 인천지하철공사 ☎ 451-2114

청라지구, 세계대학 몰려든다

청라지구에 두바이 날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를 모델로 한 학과중심의 대학단지가 조성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 내 26만4천㎡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하고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대학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10여개 대학이 설립신청서를 낸 상태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 대학 일부 학과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와 KAIST는 지난 4월 대학간 공동 연구단지 조성을 공식 발표했으며, 연세대도 송도지구에 글로벌 아카데미 빌리지를 세울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美 프로로지스 IFEZ 물류사업 참여

경제자유구역청과 프로로지스(ProLogis)가 'IFEZ 물류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6월 26일 체결했다. 프로로지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업체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물류단지 내에 미화 2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물류사업 대상지에 대한 단계별 투자를 제안해 프로로지스의 투자를 현실화하고 투자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IFEZ, 美 사이언스센터와 MOU

경제자유구역청이 미국 필라델피아 사이언스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이언스센터는 생명공학 분야 기업에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는 기관. 향후 송도지구 5·7공구에 조성될 바이오메디컬허브에 센터를 건립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미국 바이오기업 진입과 양국간 기술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언스센터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제5대 의회개원 제1주년



인천시의회 제5대 의회개원 제1주년 및 의회개원 제16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13일 의회 중앙홀에서 있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이운성·이경재·이원복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수준 높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업무연찬,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를 정립했으며,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꿔 시정 현안에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기 일수를 140일로 늘려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폭을 강화했다. 자치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및 강화 장수깃발 반환 촉구 결의,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 등에 힘써왔다. 특히 시의회는 국제도시 인천에 부합되고자 국제교류에 집중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국 시·도의장협 임사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사회가 지난 6월 27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이번 임사회에는 9개 안건이 다뤄졌으며,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임사회가 끝난 후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비전 21 홍보관, 인천대교 건설 현장, 송도국제신도시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인천의 발전상을 몸소 체험했다.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시찰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 교육원장으로부터 체육관 개·보수 공사와 공무원 교육훈련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공무원교육원 체육관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지난 5월 7일 준공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시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이 혁신과 행정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연세대학교 총장 방문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 일행이 지난 7월 16일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을 방문했다. 정 총장 일행은 이번 시의회 방문을 통해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조기 착공되도록 인천시의회가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창규 의장은 캠퍼스를 먼저 착공해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외국의 대학교와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해외기관 유치방안을 모색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을 언론에 적극 홍보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방콕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이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두 도시 의회간의 우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지난 5월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에 따른 감사의 마음을 인천시의회가 방콕시의회에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협정을 통해 두 도시를 대표하는 의회간의 우호관계가 돈독해지고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한인후손 교육비 지원

인천시의회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인 3~4세대를 위해 한글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멕시코 메리다시 한인회 한글교육비 2천만원, 메리다시 소재 제물포거리 풋발 제작비 600만원에 대한 지원안을 원안가결했다. 더불어 미국 버뱅크시와의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행정위원들과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명숙 윤리특위원장은 지난 지난해 11월 미주지역 3개 자매도시 방문시, 멕시코 한인 3~4세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시의회 여성의원과 멘토링

인천시의회 여성의원과의 멘토링 결연이 지난 7월 5일 시청 장미홀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인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의 차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천시의회 인턴 참가자 30명과 멘토 참여 여성의원 15명은 멘토·멘티를 결연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며 상호교류를 약속하고 향후 인턴 실무수습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인턴 프로그램은 국회 견학을 통한 상호 비교활동, 모의의회 개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배치 견습 등 지방의회의 현장 경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서민 일자리와 농어민 수익사업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이 제5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연임됐다.

가급적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는 의회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금융권 경험과 노하우가 동료의원들에게 믿음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시 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민의 수익사업을 확충해 시민들이 삶을 풍족하게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새롭게 선출된 1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백령고를 졸업하고 인하대 경영대학원 1년 과정을 수료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과 인천시의회 초대 의원 등을 지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소림 위원장

“청렴하고 효율적인 의회 분위기 이끌어 가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소림 의원이, 시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가 지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료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선출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의 조사를 벌이는 등의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의정을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분위기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이 관여된 단체나 개인감정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펼쳐서는 안 되며, 이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시의원이나 친인척 직업과 관련해 상임위 배정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인일여고와 덕성여대를 졸업하고, 한나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사)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평등하게 ‘가족’ 바라보기

글 · 김연령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친밀감과 유대감 그리고 결속력이 전제되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정의된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폐쇄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상가족’만이 건강한 가족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 다양한 가족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구, 기러기가족, 1인가구, 장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성차별적이고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열려있는 가족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고 개방적인 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편모·편부라는 용어는 비정상 또는 낙인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미혼 대신 비혼을 선택적으로 쓰는 것, 미·비혼부를 미·비혼모와 함께 사용하는 것 등이다.

가족 내 평등에 대한 불감증은 가족 내 폭력을 야기한다. 저출산은 사회현실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혼의 급증 등은 우리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정부는 가족위기, 가족해체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가족의 위기로 진단할 것이 아니라 가족개념의 확장과 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삶이 늘어난다는 인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이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개개인이 지향하는 가족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개인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로서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탈피하고 성별, 성적체성, 계급, 장애, 민족 등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감수성과 함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나 지역, 공공장소, 노동시장 등 다양한 사회공간에서 통용되고 표현되는 가족에 대한 인식의 점검이 필요한 때다. 🍃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시작하라. 그러한 대답함에는 천재성, 힘, 마법이 깃든다.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자.” - 괴테(Goethe)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랜 시간 생각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자신감이 없어서 선뜻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면, 괴테의 명언을 떠올리고 힘을 얻길 바란다.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시작하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의사선생님, 내 몸에 혹시 헬리콥터(?)가 있나요?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요즘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에 내원하여 가장 흔히 묻는 것 중 하나이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 속에 기생하는 나선형의 박테리아이다. 불과 20~30년 전 만해도 위에는 강력한 위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통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알려져 왔다. 또 실제로 위산의 기능 중 하나가 소화기능 외에도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을 강하게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83년 와렌과 마샬 박사에 의해 위 점막안에 기생하는 헬리코박터균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균은 위장의 점막에 붙어서 강한 알칼리를 분비하여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벽에 붙어살면서 강력한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이물질이 결국 소화기관의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의 약 70~75%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90% 이상에서 이 균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경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돗물, 분변, 치석 등에서 균이 확인되어 입을 통한 경구감염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및 식생활습관이 공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율이 높고, 위염, 소화성궤양, 위암의 유병율이 높은 편이다.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된 사람은 만성적인 각종 소화기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 균은 소화기관의 염증(위염, 장염 등),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직접적인 원인 균이며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게 한다.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위암위험이 2~6배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위궤양의 70%, 위염의 90%, 십이지장궤양의 90%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러한 질환이 발전하면 소화기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무중상이거나 습관적 설사, 변비, 메스꺼움, 구토 등 만성적인 소화기 장애를 겪기도 한다.

헬리코박터균의 진단은 내시경으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시경을 통하지 않고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는 것도 가능한데 대표적인 방법이 요소 호기 검사이다. 이는 환자가 금식한 상태에서 안정되고 무해한 동위원소가 부착된 요소를 섭취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 이 요소는 균이 갖고 있는 요소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 환자의 호흡 중 나온 호기를 모아 동위원소가 있는 탄소가 검출되면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요소 호기 검사는 내시경이 필요없어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아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환자 중 박멸을 확인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

글 · 소재범 인천광역시의료원 2내과장





인천시민 배움터 ① | **토크하우스**

뽐뽐(fun fun)하게 만나는 외국어 사랑방

외국어 공부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부하고, 외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국제교류센터가 등지를 뜬 구월동 현대해상 건물 8층의 토크하우스가 그곳이다. 토크하우스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고 외국인들도 만나면서 외국문화를 접하는 외국어 카페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외국어 자유도시, 인천

동북아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다. 여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시 산하 (재)인천국제교류센터(대표 최경보)가 토크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29일 문을 연 토크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말하고 즐기는 이야기 사랑방 같은 곳이다. 그룹별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현재 255명이 32개의 클럽에서 활동 중이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180명



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것이 김혜경 전문위원의 귀뜸이다.

클럽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가장 많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나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 입학 앞둔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강좌 등도 운영되고 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어느 학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섭섭하다. 일반 학원에서는 강사가 짜 놓은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에 학생은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지만 토크하우스는 스터디그룹의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재 등을 모두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센터는 토크하우스 문을 열기 전 클럽리더를 따로 모집해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스터디클럽의 운영을 맡겼다. 클럽리더는 반장 역할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학칙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리더들에게는 교육비, 활동비, 실비 견학비 등을 제공해 리더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그렇다고 그네들끼리만 웃고 즐기는 모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 클럽마다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조언자(Adviser)가 돼 어색한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동기 부여도 해주는 한편 혹 틀린 문장이나 문법에 대해서는 맞게 고쳐주기도 한다. 원어민과 대화가 어려운 기초반에는 외국어가 능숙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해 통역관 역할도 해준다.

‘스스로’ 하는 즐거움 두 배

영어 기초반에서 만난 외국인 자원봉사자 엘리자베스 그린(Elizabeth Green)씨는 “일반 학원보다 학생들의 열의가 넘쳐 부담 없이 더 재밌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 역시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지만 여기



서는 팀원들끼리 주제를 정하고, 발표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리 수업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훨씬 공부감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토크하우스가 어학모임만 하는 곳이 아니다.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의 부티 투안 씨(26세)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경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다”고 말한다.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학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토크하우스는 외국어 정복의 새로운 시작이 돼 줄 것이다.

토크하우스에선 공부만 하나요?

토크하우스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할로윈 파티나 포트럭(Pot Luck)파티 등이다. 8월에는 각자 음료나 먹을거리를 조금씩 준비해서 각 나라의 음식문화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포트럭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매월 ‘내셔널 데이(National Day)’를 정해 해당 국가와 관련된 행사와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첫 번째로 준비되는 내셔널 데이는 ‘영국의 날’로 정해 7월 24일 공개 강좌가 열렸다. 이날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이 참석해 ‘영국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또한 서적 및 A/V 외국어학습 관련 자료, 외국인을 위한 관광·문화·법률 정보, 외국인 상담 부스, 시민과 외국인의 상호정보교류게시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토크하우스에 함께 하려면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ice.or.kr>)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기진단 평가를 통해 외국어 수준을 정하고, 참여하고 싶은 시간을 정하면 교류센터 전문위원의 조정을 통해 스터디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451-1700

명품도시 명품시민의 첫 걸음

흔히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한다. 배우고자하면 길은 열려있다. 그 길의 한 줄기를 우리시가 맡고 있다. 시립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학장 유용규)은 우리시의 명품도시 만들기과 발을 맞춰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계절학기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장정애 씨(48세 남동구 간석동)는 교실에서 ‘사모님’으로 불린다. 성직자인 남편이 시무하는 교회에 보탬이 될까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많고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어서 공부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하게 웃는다.



이처럼 새롭게 자격증 취득을 원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고픈 이들을 위해 인천시민대학은 학점은행제 4개 전공 92개 과목과 일반교육과정 10개 분야 69개 과정을 개설해 놓고 일년에 두 차례씩 1천580명을 모집한다.

인천시민대학의 학점은행제에서는 화예학, 서양화, 체육학, 사회복지학 전공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시민대학에서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한 사람만 58명에 이른다. 이들은 학구열을 불태워 인천대, 홍익대 등의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12개 과목과 토목공학과 8개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좌도 유행 따라

시민대학의 일반교육과정은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교양, 건강관리, 취미와 여가 선용, 어학, 창업, 아동교육 등이다. 요즘에는 여성 창업관련 과정이나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면 (사)한국국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즈음에는 ‘족집게 과외’ 처럼 특강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률이 90%에 달한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대부분 자격증을 손에 쥌 수 있는 셈.

시민대학은 학기가 끝날 즈음이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무엇인지 욕구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를 참고해 시대 흐름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 하는 것. 최근에는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동미술지도사, 서양화실기지도사, 한국화실기지도사, 서예지도사, 미술치료사 등이다.

올해 새로 개설된 서예지도사 과정은 의미 있다. 람정 박영동 선생이 지도하는 이 과정은 초등학교 등의 미술시간에 서예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때문에 10년 이상 서예를 해 왔거나 전국 규모 미술대회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대학 학장인 유용규 교수도 학생이 돼 붓을 들고 있다. 박영동 선생은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강사를 양성해 내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서예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대학, 놓치기 아까운 강좌 Best 4

- ①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과정 _ 세계 시민으로서 외국어 한마디쯤은 거뜰히 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강료를 대폭 인하했다. 영어(강사 박광일), 일본어(강사 와다코지), 중국어(강사 김송죽) 과정 등이 그것인데 일주일에 두 차례 두 시간씩 진행되는 강의임에도 이들 과목의 한 학기 수강료는 10만원에 불과하다.
 - ② 와인과 칵테일(강사 김관식) _ 알코올음료의 실무적인 기초지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와인과 칵테일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실습을 통해 음료문화를 익히는 과정이다.
 - ③ 문화재답사(강사 지성창) _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체험과정이다. 이론과 더불어 현장답사를 통해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다.
 - ④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전문강사(강사 홍재기) _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천연화장품과 천연비누에 대한 전문 강사와 창업자를 양성한다.
-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던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시민대학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 ☎ 441-5394~5 <http://www.cecui.com>

평생교육원 입맛 따라 골라간다?

- 지난 1977년 설립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인하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05년부터 기존의 사회교육원, 언어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출판부 등을 통합해 평생교육원을 신설했다. 특히 좀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2007년 1학기부터 시민대학을 70명 정원의 무료강좌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내 연구소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센터와 제휴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송유근 군과 같은 영재발굴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 ☎ 860-8292~6 <http://conedu.inha.ac.kr>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미술치료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에서 운영하는 미술치료의 6개 단계를 교육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은 물론 경기, 충청 등지에서도 미술치료 교육을 위해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 438-8131~4 www.iccu.ac.kr/life
- **경인교대 평생교육원**은 특히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시민강좌가 인기다. 인천시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수강료도 2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지난 학기에는 ‘좋은 대화법’이라는 강좌를 열어 100여명의 시민들이 매주 한 시간씩 문화시민이 되는 강의를 들었다. ☎ 5401-152, 153 www.ginue.ac.kr

Beautiful seaside town in Incheon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해산물 레스토랑, 거리 공연 등의 볼거리와 아름다운 섬 주변의 경관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 seaside promenade offers visitors a variety of seafood restaurants, street performances and beautiful vistas of the nearby islands.

Tourist Information : Hello, welcome to Incheon. How can I help you?

Visitor : Hi, I have just arrived in Korea for two weeks vacation. Could you recommend somewhere to visit for my first weekend?

Tourist Information : Have you heard about Wolmido? It is a beautiful seaside town in Incheon.

Visitor : What activities are there to do there?

Tourist Information : You can visit the theme park and ride the famous Viking ship. Children love it. You can also take a tour of the surrounding islands on a ferry.

Visitor : Fantastic! Where can I go to eat?

Tourist Information : Wolmido has many superb seafood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that offer a variety of delicious cuisine.

Visitor : It sounds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ourist Information : You're welcome. Enjoy your stay.

관광안내소 :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관광객 : 네, 한국에 2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 갈만 한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관광안내소 : '월미도' 라는 곳 들어 보셨나요?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관광객 :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관광안내소 :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과 같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관광 페리로 인근 섬 지역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 : 멋지네요. 식사는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나요?

관광안내소 : 월미도에는 멋진 해산물식당과 커피숍들이 많이 있어 맛있고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 : 훌륭하군요. 감사합니다.

관광안내소 : 천만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글 · Ross Docherty (인천영어마을 영어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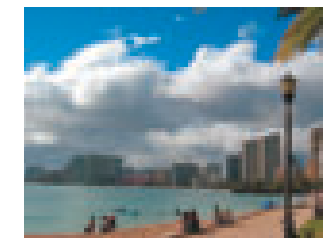


호놀룰루(Honolulu)와 우리시는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해양·관광도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두 도시의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져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자료제공 · 국제협력관실

호놀룰루(Honolulu)는 미국 하와이주(州) 오아후섬 남동부에 있는 하와이의 중심도시. 1778년 원주민이 살던 마을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발견했으며 1816년 시제(市制)가 시행되면서 도시의 틀을 갖추었다. 호놀룰루는 태평양에 위치한 섬이라는 도시 특성상 태평양 교차로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스페인-미국전쟁 발발 후인 1900년 미국의 정식 영토가 되었으며, 1900년에는 진주만(Pearl Harbor)에 해군의 주요기지가 주둔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도시이자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뷴(IHT)에 세계 10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우리시와 호놀룰루의 인연은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미주 이민선 갤릭(Gaelic)호가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면서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을 연 것이다. 두 도시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우호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인의 미주 이민 50주년을 맞아 1952년 인하대학교 설립에 합의했으며, 미주이민 100주년인 2003년에는 자매결연을 맺어 더욱 긴밀하게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호놀룰루 경제개발국장이, 2005년에는 하와이 주지사가 방인했으며, 공무원들의 상호파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우리시 교육생 16명이 호놀룰루로 어학연수를 갔으며, 2006년과 2007년에도 우리시 공무원이 호놀룰루시에 파견돼 선진 관광문물을 접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관광과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07년 호놀룰루에서 열린 인천대표작가 초대전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열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우리시와 호놀룰루는 역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항만을 품고 있는 해양도시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닮아있다. 특히 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각광받는 호놀룰루는, 최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두 도시의 각별한 인연이 관광·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및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져, 우리시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반짝반짝 빛나는 태평양의 꿈



교실 밖 교실, 방학이 신나요~

방학이라고 신이 난 아이들.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체험을 하기에 방학만큼 좋은 때도 없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 눈과 손, 마음까지 즐거운 체험교실을 찾아보자.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가족과 함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박물관 체험교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란 타이틀이 붙은 시립박물관이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박물관에서 열리는 음악회, 시민들을 위한 강좌, 토요체험교실 등 굳이 유물을 감상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박물관을 찾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

지난 4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뛰어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4월에는 전통매듭이, 5월에는 오방색공예가 열렸다. 음력 단오가 들어있는 6월에는 단오 부채 만들기가 열려 80명이 참여했다.

단오 부채 만들기가 열리는 날 시립박물관을 찾으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왔은 어린이들로 세미나실이 시끌벅적하다. ‘가족체험단’ 앞에는 부채와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한지가 놓여있다. 한지공예 전문가인 박원미 씨가 5월 5일이 무슨 날이냐고 묻자 생각할 틈도 없이 “어린이날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곧이어 음력으로는 ‘단오’라는 것과 함께 우리조상들은 단오 때가 되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직접 만든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드디어 한지 부채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조막손으로 조심조심 보라색, 초록색 한지를 뜯고 자르고 붙이는 동안 엄마, 아빠는 도우미가 되고, 강사 선생님은 책상 사이사이를 누비며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지도해 준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함께 체험을 도와주니 처음 해보는 한지공예라도 어렵지 않게 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한 하람이네(함박초 1)는 아빠 김문식 씨와 동생 소람이(6세)가 짝을 이루고 하람이와 엄마 박지연 씨가 한 편이 돼 누가 더 예쁜 부채를 만드나 시합이라도 하는 낭 진지한 분위기다. 아이들과 전통 등을 만들러 서울 국립박물관에도 갔었다는 하람이 엄마는 “박물관 체험교실은 토요일 오전시간에 열리는 터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고, 가까운 곳에서 전통 문화를 익힐 수 있으니 더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시립박물관의 토요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들이 대상이다. 박물관홈페이지에서 매주 넷째주 화요일 9시부터 접수를 받는데 1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기 일쑤라며 박물관 이현아 학예사가 귀뜸해 준다. 앞으로 8월 네째 주에는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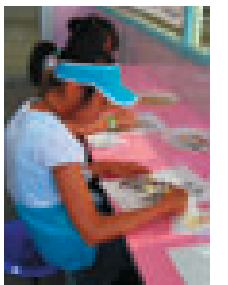
색공예, 9월 전래악기 만들기, 10월 서화감식, 11월 짚풀공예, 12월 마야유물 만들기 등이 계획돼 있다.

- 체험일정 : 매월 넷째주 토요일 10시~12시
- 체험대상 및 방법 : 초등학생 가족 15팀. 시립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incheon.go.kr>)에서 매월 넷째주 화요일 9시부터 접수 (☎ 440-6128)
- 수강료 : 없음 (재료비 별도)
- 장소 : 시립박물관 세미나실
- 찾아가는 길 :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 하차 후 6번, 8번, 16번 시내버스를 이용해 송도유원지에서 하차. 도보로 5분.

TIP 주말엔 박물관으로 오세요~

시립박물관에서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청량산주변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열고 있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20팀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에 모인 어린이들이 체험교실에서 탁본 실습 등을 하는 사이 부모님들은 박물관 유물해설사의 안내로 전시물을 관람한다. 다시 재회한 가족. 이제 부모님들이 해설사가 될 차례다. 엄마아빠가 이해한 만큼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는 것. 엄마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가족이 함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영상물을 시청하고 가천박물관에서 함께 다도체험을 하면 가족간의 정도 새록새록 솟아난다.

이밖에도 박물관에서는 상시 체험교실이 열린다. 탁본뜨기와 민화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교실과 정수사 기와 쌓기, 꽃 창살 퍼즐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코너가 마련돼 있어 언제라도 체험학습 속으로 뽕뽕~ 빠져들 수 있다.



입은 소근소근 손은 조물락조물락 **짚풀공예**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시골마을에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아이들이 뿔뿔히 뿔다. 갑자기 웬 외국인 아이들일까? 외포리 노인회원들이 우리나라 50~60년대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던 지푸라기를 이용한 체험 교실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짚풀공예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아이들은 ‘한국 속의 외국’, 서울 반포 서래마을의 프랑스학교 1, 2학년 아이들 43명이다.

말 설고 낮 설은 곳에 도착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층의 전시실. 짚으로 만든 소쿠리, 모자, 짚신 등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은 조심스레 손끝으로 만져보다가 이내 모자를 써보고, 짚신을 신어 보기도 하면서 짚을 손으로,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직접 짚으로 ‘예술품’을 만들 차례. 아이들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란 꾸러미’에 도전하기로 했다. 동그렇게 아이들이 둘러앉고 사이사이 오늘의 일일 교사가 될 동네 어르신 열 분 정도가 자리를 잡았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 모습이다. ‘예술’은 만국 공통어 ‘바디 랭귀지’로 통하기 마련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손을 놀려 보지만 모양이 쉽게 잡히질 않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한번 짚을 훑어 내리자 어느새 계란꾸러미에 땀기 뿜은 머리가 만들어지고, 그럴싸한 손잡이도 생겼다.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의 도움으로 계란 2~3개씩 담긴 각자의 계란 꾸러미를 받은 아이들은 지푸라기 사이에 자기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밀어 넣으며 뿌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 때 그 시절의 물건이지만 프랑스 아이들의 여행 가방엔 추억의 꾸러미가 하나 더 얹어졌다.

- 체험방법 : 단체 5명 이상 예약시 수시 교육 (☎ 011-296-6591)
- 수강료 : 5천원



- 기타 : 식사(가정식 백반기준 1인 5천원) 가능
- 찾아가는 길 : 초지대교를 건너 외포리 방면 이정표를 따라 오다가 장수촌(오리탕전문집)을 끼고 우회전
-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에서도 노인회원들이 지푸라기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방법이나 비용은 외포리와 비슷하다. (☎ 937-0377, 011-9740-2693)

신의 손으로 빚어내는 세상 **도자기 체험**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마니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니산초등학교는 얼마 전까지 운동장에 풀이 무성한 일명 ‘폐교’였다. 몇 해 전부터 이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국립강릉대학교 산업공예학과 김미옥 교수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의 문을 열고 이곳에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곳에 초등학교의 교실과 집기들을 이용해 300명이 동시에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4곳의 도예실을 비롯해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 교실을 개조한 갤러리, 연구실 등을 꾸몄다.

문화도시 인천의 밑거름이 되길 원하는 김 교수는 8월 한 달을 무료 도자기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8월의 매주 토요일 마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씩 맘껏 주무르고, 빚고, 만드는 도자기의 세계에 빠져 볼 수 있는 것. 도자기 빚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김 교수를 비롯한 각 대학 미술대학 강사들이라 여느 문화센터의 도자기 체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1시간 30분 동안 흙과 함께 호흡하면 간단한 모빌, 필통, 컵 등의 작품이 탄생한다. 자기가 만든 작품을 구워서 보관하길 원할 경우 한국강화문화예술원에서 따로 구워(비용 별도 6천원) 택배로 받아 볼 수도 있다.

- 체험방법 : 초, 중, 고, 일반 등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
- 신청방법 : 당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60명 접수 (☎ 937-9320, 011-9104-6997)
- 찾아가는 길 : 초지대교를 지나 초지삼거리에서 좌회전해 마니산 방면으로 간다. 두 번째 사거리에서 덕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10분 만에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이라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이정표를 보고 마을로 좌회전해 들어가면 덕포마을이다. 강화 읍 쪽에서는 마니산국민관광지 주차장에서 덕포리 방면으로 2.8km 지점, 덕포리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다.



우주를 품에 안은 과학동산 **옥토끼우주센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닐 암스트롱이 1969년 달에 발을 딛는 순간 계수나무 한 그루와 옥토끼 한 마리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 그렇다면 달나라엔, 우주엔 무엇이 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강추’할 곳이 생겼다. 강화군 길상면의 옥토끼우주센터가 그곳이다.

강화에서도 ‘시골’ 이랄 수 있는 곳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만큼 옥토끼우주센터와 만남은 좀 뜻밖이다. 놀라움은 옥토끼 두 마리가 반갑게 맞이주는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더해진다. 우주센터의 마스코트 코스와 모프 덕분이다. 귀여운 옥토끼 두 마리가 찡고 있는 절구 안으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우주탐사가 시작된다.

첫 테마는 태양계 여행이다. 신비로운 우주탄생의 비밀을 태양계와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씩 밝혀내는 과정이다. 머리 위로 펼쳐진 행성들에 금방이라도 다가설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은 우주 탐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볼 차례. 여러 우주선의 모형들, 사진들을 둘러보노라면 항공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항공역사, 그리고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 우리나라 우주센터까지 머리 속으로 쏙쏙 들어온다.

이제 우주를 직접 탐사해 볼 시간이다. 우주인들이 탔을 탐사선에는 수백 개의 버튼과 패널이 기기묘묘하게 뒤엉켜있다. 달 탐사선이 지나다니는 전시관 한 칸에는 직접 우주인이 돼 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무중력체험, 우주유영 등과 같은 체험 기구를 통해 잠깐이지만 진짜 우주에 와 있는 느낌을 가져본다. 다른 한 쪽에 자리 잡은 우주 3D영상Zone은 우주의 신비와 존재를 웅장한 사운드와 다이내믹한 영상으로 표현해 감동의 도가니가 따로 없다.

2층에는 우주여행에 필요한 물품이 전시돼 있다.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 입을 옷, 카메라에서 잠깐까지... 금방이라도 우주인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제 화성탐사관과 달탐사관을 지나 우주과학교실로 올라간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과학의 원리로 설명한 곳이지만 소리의 전달 등을 기구를 통해 실험하면서 둘러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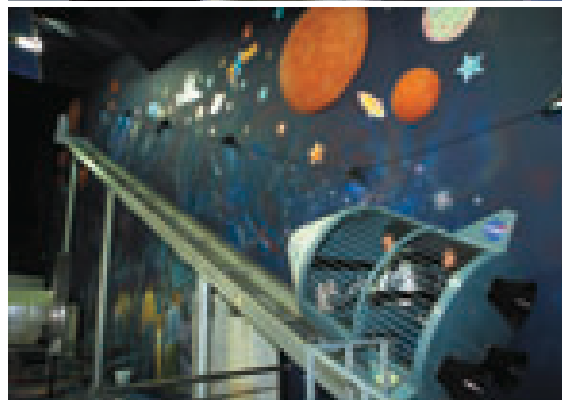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밖으로 나와 전망대에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우람한 로봇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듯 하다. 유명한 놀이공원처럼 예쁘게 꾸며진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우람한 공룡들을 만날 수도 있다. 또한 야외에는 영상관, 무중력체험기, 물대포, 생태공원 등이 꾸며져 있어 또 다른 체험을 맛볼 수 있다. 로봇공원 옆에는 서바이벌 게임장이 곧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때문에 굳이 우주체험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연인들끼리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찾아도 여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

- 체험방법 : 단체나 개인별로 체험이 가능하다.
- 입장료 : 어린이 8천원, 어른 1만2천원
- 찾아가는 길 : 초지대교를 건너 바로 우회전하고 초지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전등사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불은면 사무소 방면으로 84번 도로를 따라 10분정도 간다. (☎ 937-6917~9 www.oktokki.com)

TIP 체험학습 알차게 하려면

무엇보다 **아이의 관심 분야를 살피** 주제를 정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뭘든 해보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에 미리 관련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사전 지식을 알고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메모하고 답을 스스로 찾는 게 유독한다.
- 초등학교 1~2학년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저학년 때는 뚜렷한 관심 분야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미리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고 가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다녀온 뒤에는 그림일기를 통해 체험을 돌아켜보도록 한다.
- 3~4학년이 되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고 한 단계 높은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때는 부모와 같이 가더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 해설가나 강사의 설명을 들도록 한다.



문화예술 씨 뿌려 아름다운 꽃 피우는 인음예술단

거리를 걷다 우연히 발견한 공연소식, 찻집의 계단을 오르다 눈길이 머무는 음악회 포스터, 햇살이 비치는 현수막 위에 새겨진 콘서트, 전시회를 알리는 팸플릿을 만나면 그냥 좋다. 잠시 멈춰 서서 삶을 여유 있게 즐기라는 그 손짓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제물포 남부역 건너편의 ‘인천 음악교육사’는 세상의 모든 악기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악기나라이다. 2층은 ‘인천음악사회교육원’으로 이곳이 바로 인음 예술단원들의 연습장이면서 수많은 음악회가 기획되고 탄생되는 산실이다. 그리고 연습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무료로 개방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인음예술단을 이끄는 정완희 단장은 악기사를 경영하면서, 음악인들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대중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단원들에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서 관객을 이끌고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을 주문한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관객이 적은 인천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문화운동’이라는 것임을 강조한다.

현재 인음예술단에는 8개의 음악단체가 있다. 93년 뉴인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인음청소년교향악단, 인음 챔버오케스트라, 인음스트링앙상블, 인음청소년플루트앙상블, 인천플루트콰이어, 인음주니어현악합주단, 페스티벌 플루트앙상블이 계속 창단되었다. 음악의 형태가 다르고 음악하는 사람의 수준도 달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 8개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인음예술단은 음악 왕국이다. 인음은 ‘인천음악’이라는 뜻이면서 또 좋은 소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한인자 기획실장은 인음예술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는 데 각 단체들이 1년에 두 세 번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늘 바쁘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선배단원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아름다



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뉴인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최로 교수 초청 연주회, 인천을 빛낸 음악인 초청 연주회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민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했다.

8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최한원 교수 초청연주회도 인음예술단이 주관을 해서 힘들게 마련한 연주회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다.

정완희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창단 초기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 주었다. 영종도의 학생수련원을 힘들게 빌려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악기로 다른 곡을 연주하는 소리를 운동장에서 듣는 데 ‘아! 행복해’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뿌듯하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청소년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느껴졌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로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인천교도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노틀담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찾아가 교과서에 나오는 곡이나 익숙한 곡으로 작은 음악회가 주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다. 전교생이 8명뿐인 강화의 명신초등학교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주민 150명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었던 추억도 들려주었다.

토요일 오후, 40여명이 되는 학생들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7월 22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청소년 음악회’를 위해 청소년 단원들은 베토벤의 ‘운명’ 전 악장에 도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키보다 더 큰 첼로를 연주해 온 최희지(신송초 5년)는 첼리스트가 꿈이라고 했다. 엄마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이 어린 소녀는 벌써 자기 꿈에 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한소현(인천예고 2년)은 5살부터 바이올린과 인연을 맺고, 중학교시절에 전공으로 결정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연습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면 성취감을 느낀다는 소현이는 음악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다.

자연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인간의 봄은 만들어야 온다는 말이 문득 생각난다. 인천에서 문화예술의 씨를 뿌려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도 향기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스해진다. 🌸

문의 ☎ 888-0808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쁜이(35세)는 학창시절 여자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학창시절의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휴양지에서 못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설레임에 마냥 들떴던 우리의 예쁜이는, 마침 그곳에 놀러왔던 연하남인 꽃미남(33세)을 만나 첫눈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름다운 로맨스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문제 발생을 예방해 봅시다.

사례1 예쁜이와 꽃미남 중 한 사람은 기혼, 다른 사람은 미혼인 경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면, 배우자 있는 자는 형사상 간통죄로, 그 상대방은 상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면 형사상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남달리 친근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단둘이서 자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각테일 한잔씩 나누며 데이트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보기에 썩 기분좋은 일이 아니어서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죄보다는 그 범위가 넓어서 남녀간의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 및 그와 정을 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던 꽃미남이 자신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처녀인 예쁜이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꾀어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쁜이가 꽃미남과 결혼하기를 기대하며 성관계를 가졌을 뿐, 꽃미남이 결혼하겠다는 말로 조신한 예쁜이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단지 꽃미남이 총각행세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예쁜이가 기혼자인데 미혼인 순진한 꽃미남을 꾀어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2 두 사람 다 미혼 혹은 기혼자인 경우

예쁜이와 꽃미남이 모두 미혼인 경우는, 선남선녀의 만남으로 민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쁜이는 피서지에서 만난 꽃미남과 천천히 친해지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난봉꾼이었던 꽃미남이 예쁜이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실 누가 기혼자인건 미혼자인건 상관없이 동일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기혼자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형사상 간통죄와 민사상 이혼사유가 서로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여름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들뜬 마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고를 염두에 두고,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글 · 이상미 변호사 (로펌 로시스 ☎ 861-5511)



욕조에서의 물총놀이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 가끔 욕조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미소진 얼굴로 욕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운 여름, 욕조에서 물총놀이 하는 울 아들과 친구 아들들. 너무 시원해 보이죠?

이준형 | 부평구 청천2동

김치~찰칵



동검도에 가보세요

강화도 길상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하고 그냥 돌아오기 아쉬워 동검도에 들렀는데 기대이상, 완전 대박이었답니다. 욕지화되어서 그냥 차 타고 편하게 가면 되구요, 물이 빠지면 그야말로 천원 머드팩 갯벌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들 갯벌에서 제대로 놀았습니다. 미끄럽다고 기어다니고 파보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곳이 숨어있을 줄이야.

이혜연 | 동구 만석동

우리딸 예쁘죠?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 38선 휴게소에서 딸들의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정말 예쁘죠? 큰 딸은 작년에 결혼을 해 잘 살고 있어요. '이쁜 우리딸, 행복하게 잘 살거라.'

김옥분 | 남구 학익2동



나는... 봤다~

늘씬한 미녀의 속살을 보았습니다. 실제라면 좀 망측했겠죠. 신포동 패션거리 입구에 있는 조형물의 모습입니다. 생동감 있는 조형물처럼 신포동이 예전같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지원 | 남동구 구월1동

드림파크 야생화 축제

쓰레기 매립지였던 드림파크에서 야생화 축제를 개최할 때입니다. 야생화 전시 외에도 토끼이리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나날이 발전해가는 축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경숙 | 계양구 병방동

해적과 함께

뒤뜰에 오랫동안 놓여진 해적과 함께 엄마랑 이모 그리고 친척동생이 사진을 찍었어요~ 오랫동안 만난 두 사람. 행복해보이나요?

오영미 | 남구 학익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소리쳐 부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손짓하였다

— 최경섭의 ‘바다’

글·김학균 시인



연당 최경섭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필자를 놀라게 한 일이 세 번 있었다. 1957년 인천으로 오신 후 줄곧 교직에 몸담으신 기간 40년 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신흥동 안국아파트에 사실 때 차남이 정신이상으로 옆집아이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정신을 놓을 뻔 하신 일을 시작으로 정년 후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웠다.

장남은 H개발(주)를 따라 중동현장으로 갔다가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부모자식간 단절로 실의에 빠진 선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하는 입에 담아서 안될 욕까지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주공아파트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이 수년간 체불되어 압류될 처지인 것을 해결했던 두번째의 사연. 그리고 부인과의 사별이 세번째 사연이다.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지만 70년대 까지만 해도 문인들끼

리 모인 술자리에서의 훈훈한 인정나누기는 그리운 일로 남아 지금도 되돌아가고 싶다. 80년대의 어느날 신포동의 ‘미미집’에는 하나 둘 모인 술꾼들로 화기에 애했다. “오늘 술값은 학균이가 계산한다” “다만 손대加里(손선향)와 연당 선생께서 많이 어려우니 십시일반 좀 해보자”하며 각출한 돈이 꽤 되어서 30만원, 40만원으로 나누어 보탬을 드렸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아마 지금 같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만 살맛 났던 그 시절 그때의 일이다.

정년 후의 생활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아마도 후학과 제자라면 너무 믿었던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귀가 얇은것 또한 빠질 수 없는 흠으로 일시불로 탄 퇴직금을 송두리째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때문이리라. 법 없이도 살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어느 몸쓸 놈의 인간이….

인천에 거주지를 두고 문인활동을 한 시인들을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포함) 한두 편의 인천을 주제로 한 시가 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더러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연당 선생 또한 그러한 분으로 어렵게 찾아낸 ‘바다’라는 시를 소개할까 한다.

1976년 ‘경기문예’가 창간 될 때로 기억되는 이 작품은 인

천의 서지학에 뜻을 둔 신연수씨에 의해 발견된 글로 연희전문 재학시절 월미도를 다녀가면서 쓴 시로 꽤 오래된 작품이다. 바다 바람이 이 엽복의 계절에 청량감 있게 다가올 줄 누가 알겠는가.

바다

바다야

내가 소리쳐 부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손짓하였다.

너는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해서는

자꾸만 내 옷깃을 헤쳐 놓았다.

너는 나를 시골뜨기로만 아는 모양이다.

내가 대견하여 어루만져 주려고 하면

와와 밀려와선 외락 메밀고 달아나고

내 발끝 손끝을 철썩 입맛추고는 내뺀다.

바다야

너는 그렇게도 놀려대기가 좋으냐?

내 입술이 왜 이렇게도 짜냐?

너는 온통 가슴뿔이로구나!

한나절 속속들이 들여다보아도

네 검푸른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나는 모래밭을 거닌다... 갈매기를 부른다.

평북 희천 출생(1910년)으

로 농업고를 거쳐 연희전문 문

과를 졸업하고 일본유학과 해방

을 겪고 잡지사 편집기자, 1955

년 중앙일보 문화부장을 끝으로

57년 교직에 입문, 인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정년을 넘기셨다. 1937

년 ‘조광지’에 ‘초추’를 발표하며 문

단에 나왔고 38년 첫시집 ‘풍경’을 간행하였으며 긴 휴식기

뒤 68년 제2시집 ‘중·중·중’을 간행했다. 이 시집은 저자의

인간적 수련과 경험, 인내의 과정을 잘 묘사한 글로 평가

되었다.

1969년 경기도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문인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연당 선생은 시인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역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또다른 시간속에 살았다

면 시인으로 대성할 사람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었다.

연당선생의 중(鍾)은 쉬지않고 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도. 🐦



서울까지 배달했던 인천 냉면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여러분, 인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자장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자장면 못지않게 인천의 냉면이 유명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은 인천 냉면의 역사 속으로 Go! Go!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고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인천엔 각종 음식점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냉면집의 맛깔스러운 냉면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금의 중구 용동에 있던 '평양관'이 인천 냉면집의 원조로 알려져 있고

경인면옥, 복영루, 사정옥 등이 유명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냉면집의 빨간 깃발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한다.

이 냉면집들의 맛은 맛있기로 유명해서 서울 등 타지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냉면여행을 올 정도였다.

인천 평양관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지?

군침이 도는군~

서울 명동 주식취인시장에서 장거리 전화를 걸어 냉면을 주문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여기 명동인데요, 냉면 302그릇 주문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배달꾼들은 긴 목판을 어깨에 메고 인천뿐 아니라 서울까지도 냉면을 배달했고

냉면이 나갑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냉면을 배달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었다.

저것도 기술이구만~

그 시절 목판을 이용한 냉면 배달이 오늘날 중국집 철가방의 원조가 된 셈이다.

헝님!

옛날 유명했던 인천의 냉면집들은 지금 자취를 감추었지만

값싸고 맛 좋고 양 많기로 소문난 냉면이 있는, 동구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골목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맛있다

여름엔 시원한 냉면이 최고지~

아저씨, 사리 가져요!

예~

햇빛이 어느 키 큰 나무 이파리에 스며
태어난 푸른 공주

박. 사. 룬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지난해 미스 코리아 선 박사룬(朴紗룬) 양. 스물세 살. 눈부신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 클레오파트라나 살로메처럼 달빛 비치는 요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풋풋한, 햇빛이 어느 키 큰 나무 이파리에 스며 태어난 늘씬한 ‘광합성의 푸른 미녀’라고 부르면 맞을까. 꽃으로 이룬다면 아마 복수초 꽃잎, 혹은 수선화, 복사꽃, 아니, 저 알프스 고산에 피는 새하얀 순수의 꽃, 에텔바이스?

다물면 살짝 당겨지듯 하는 윗입술의 도톰함이 이 공주의 매력인가. 어금니 속까지 들여다봐도룩 시원하게 웃는 웃음인가. 콧날인가. 이마인가. 풀 향기가 풍길 듯한 치렁한 머리카락, 긴 목... 그래. 거기에서 가느다랗고 연해서 얼핏 드러나지 않는 속 쌍꺼풀눈이 마음을 끄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것뿐인가. 265센티의 발길이가 하나도 커 보이지 않는 그 늘씬한 신장은 또 어땠고! 하체가 긴 이 집안 네 식구의 평균 신장이 180.5센티이라고 하니... 남구 학익동 은혜교

회 목사인 아버지 박정식(朴正植) 씨가 187센티, 어머니 박연주(朴蓮珠) 씨 170센티, 사룬 양 178센티, 군에 입대한 오빠가 187센티이니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앉으면 무슨 농구부 합숙소 같은 느낌이 들겠다.

“제 이름의 사룬은요, 이스라엘의 평원지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작명이고요.”

미국 여배우 사론 스톤을 연상할 뻔했는데 그걸 눈치 챘는가 보다. 그런 의미였구나. 풀 향기에 열을 빼앗긴 채 ‘섬김과 만남’이라는 마음 자세로 대회에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 모르긴 해도 그것은 미스 인천 1등을 하고, 다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여인에 뽑힌 우리 공주의 평소 생활 지침이기도 할 것이다.

“작년 5월 중순이었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미스 인천 선발 포스터를 발견했는데, 거기 문구가 재미있었어요. ‘부엌 속의 신데렐라를 찾아라’였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광고 문구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야기 속의 신데렐라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부엌데기 노릇을 하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아가씨들은 부엌데기도 아니고 의붓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 틀린 광고가 우리 공주로 하여금 유리 구두를 신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미녀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직 세상이 신기하기만 한 호기심 많은 스물셋’ ‘솔직하고 편안한 성격인데 조금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어떨 땐 굉장히 평범하고 또 어떨 땐 조금 특별하기도 해’ ‘근데 지극한 평범이 내게 어울려’ ‘난 그냥 박사론이거든.’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을 적은 개인 홈페이지 내용이 맞았다. 아직 스물셋 호기심 많은 성격이, ‘또 어떨 땐 특별하기도 한’ 행동이 그 포스터에 적힌 전화번호를 따라가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되돌아온, 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니 출전해 보라는 응답.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거기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문제는 참가할 복장. 목사 딸 여대생이 무슨 드레스가

있고 무슨 보석 액세서리가 있을까. 하는 수 없이 이쯤에서 어머니께 고백한 듯 싶다. 어머니는 그렇게 출전을 말하는 당신 딸의 눈부신 청춘 속에서 문득 자신의 햇빛 고운 옛날을 보았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스승의 날 선물 받은 두 부부의 ‘커플 티셔츠’를 딸이 입고 참가하도록 원피스로 바꾸어 주었겠지. 목걸이도 귀고리도 어머니 것을 빌리고, 그리고 ‘루이 뒤편’ 모조 핸드백을 들었다. 거뜬히 스물한 명을 뽑는 예선에 들었다.

전문적으로 미용을 도와주는 사람도, 샵프롱도 없었다. 한복에 필요한 6,500원짜리 비녀 하나와 팔찌를 빌리기 위해 쓴 돈 해서 53,000원이 총 비용이었다. 목사 아버지가 천막 교회부터 시작해서 20년, 그렇게 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큰돈을 들여 나갈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결국 실습생 보조자들의 도움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섰지만 진(眞)의 자리, 인천 여왕의 자리는 샤론 양의 차지였다. 기뻐다. 기뻐는데 어린 마음에 뒤편이 서러웠다. 평평

울었다.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다 차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왔다. 목사님도 예배가 끝난 후 달려와 딸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한국 전체 본선에 출전한 이후의 사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본선 진출자들은 전문가나 아나운서와 함께 스피치 연습이다, 뭐다 했지만 우리의 공주는 그저 ‘즐거다 오겠다’는 흥분한 마음으로 한 달 간의 합숙에 들어갔다. 본선 무대에서도 하나 떨릴 것이 없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잃을 것이 없으니’ 불안할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유일하게 눈썹을 안 붙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정말 화려했는데…. 화장 전문가도 없고, 옷도 전부 빌려야 했고…”

곁에 앉은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젖어 든다. 목사님 사모가 아니라 그냥 한 딸의 어머니로서 목메는 마음. 그렇지만 여기서도 최후의 무대에까지 섰던 것은 다른 애들이 아닌 자신의 딸이었다. 미스 코리아 진 이하늬와 나란히 선 ‘내 딸’이었다. 그러나 샤론 양은 최후의 두 명으로 자신이 남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외었다고 한다.

“마지막, 저, 진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아버지가 목사이십니다. 진은 정말 처신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뜻한 대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선이 되었다. 그 후 117개국 미녀가 모이는 폴란드 미스 월드 대회에도 혼자 참가한다. 비용 문제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고생이 많았다. 그러 까닭에 대회 참가가 더욱 인간으로서, 여인으로서, 참하고 넓은 사색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되바라지지 않은, 우쭐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착한 감성을 가진 공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국내외에 인천 미녀의 아름다움을 과시한 대견스러운 박샤론 양.

떡볶이를 먹는 저 모습. 이렇게 미녀와 함께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늘이 내리신 복이다. 그런 한편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자꾸 목이 멘다. 돈 드는 일, 어느 한 가지 해 준 것 없이 저 혼자 고생하며 밀고 나가 급기야 여왕의 관을 쓰고, 아름다움을 만방에 떨치고 돌아온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못내 가슴 아픈 것이다.

생각해 본다. 저 어머니의 미모가 고스란히 딸에게 물려졌고, 어머니의 고운 마음이 또 곱게 딸의 가슴 안에 고인 것이다. 저 키 큰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착하고, 세상 부럽도록 고운 딸을 길러 내었고…. 그러니까 그 딸이



수많은 사람 앞에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샤론 양은 못 사람의 선망과 질투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위치에 선 것이다. 미모만큼이나 환한 마음으로 평생 그 모든 것을 자기 몫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샤론 양은 인천백학초등학교를 나왔다. 관교여중, 인명여고를 거쳐 서울여대 불문과에 재학중이다. 현재 인천상수도 사업본부 ‘미추홀 춤뿔’ 홍보대사와 기독교 TV의 수호천사 프로의 리포터로 활약한다. 봉사활동에도 전력한다. 최일도 목사, 그 ‘밥퍼 홍보대사’로 캄보디아에도 날아갔다 왔다. 제주도에서 열린 장애아를 위한 자선행사에도 참가했고. 공인으로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낸다.

다물면 살짝 당겨지듯 하는 윗입술의 도톰함이 이 공주의 매력인가. 어금니 속까지 들여다봐도룩 시원하게 웃는 웃음인가. 콧날인가. 이마인가. 풀 향기가 풍길 듯한 치렁한 머리채, 긴 목…. 그래. 거기에서 가느다랗고 연해서 얼핏 드러나지 않는 속 쌍꺼풀이 마음을 끄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래. 또 거기에서 햇빛보다 밝고 꽃보다 고운 심성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걸 거야. 그래서 어쩌면 서정주(徐廷柱)의 마음도 그랬던 것일 게다.

머리카락이라든지 콧구멍이라든지 콧구멍이라든지 바다에 떠 보이면 아름다우렀다.

석벽(石壁) 야생(野生)의 석류(石榴)꽃 열매 알알 입술이 저… 이빨이 저…

— 서정주, 「고을나(高乙那)의 딸」 부분

떠나요~ 승봉도~

대학 기숙사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우리들은 전공과도 각각 다르고 사는 곳도 각기 달라 졸업 후엔 서로 얼굴 보며 지내기가 어려웠다. 학교 때에도 변변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해 항상 아쉬워 더 늦기 전에 추억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사람들로, 장사꾼들로 너무 치이지 않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우리들의 추억여행 1호 장소를 작지만 아름다운 섬 승봉도로 정하게 되었다. 2박3일의 일정으로 승봉도 여행을 계획하고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 안개로 인해 배가 뜨질 못해 우리를 잠시 애태웠지만 이내 안개는 사라지고 쾌속선은 승봉도를 향해 질주했다. 민박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게 펼쳐진 이일레해수욕장이 일상에 지쳐있던 우리의 가슴을 뽕 뚫리게 해주었다.

너무 작아 버스도 택시도 안다닌다던 승봉도는 정말로 한눈에 온 동네가 내려다 보였고 그 중심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가 도시에 사는 우리들 눈에는 신기해 보였다. 쫓대 바위로 가는 바닷길에는 이곳이 서해바다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우리를 멈추게 하였다. 마지막 날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파티! 모든 시설이 민박집에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는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마음껏 즐겼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들의 추억들이 남겨져 있는 승봉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몽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남상희_남구 주안6동

아들과 함께 보낸 늦여름의 그 바닷가

작년 여름, 휴가철이 지났는데 입대한 아들이 백일 위로휴가를 나왔다. 의는 끝에 우리 부자만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고 가까운 장봉도에서 1박2일 일정을 잡았다. 예상보다 한산한 섬. 수백 년 전에 지혜로운 조상들이 후손의 안전을 위해 심어놓은 노송 방풍림이 해변에 줄지어 서서 거친 바닷바람을 막아내고 있다. 우린 고운 모래사장에 명당을 잡아 텐트를 쳤다. 느지막하게 피서 길에 나선 사람들의 텐트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철지난 바다. 그러나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 바다에 제철이 따로 있으랴. 우린 수영복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사실,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아이를 굳이 데려온 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좀 유약하게 자란데다 내성적이라 그동안 군 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터다. 훈련소와 병과교육과정을 거쳐 자대 배치된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에서 가장 낮은 계급장을 달고 온 아이 몸을 내손으로 씻어주고 싶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하는 일이긴 하지만 힘든 고비를 잘 넘긴데 대한 내 속마음 표현인 것이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꼽을만한 장관은 서해 일몰일 것이다. 귓전을 울리는 파도소리, 아까까지만 해도 낙조의 유혹을 받아 들였다가 어느새 달빛이랑 마음 맞은 이웃 섬들. 저 멀리 국제공항에 설 새 없이 뜨고 내리는 항공기 불빛과 야경... 깊을 대로 깊어진

밤까지 처음으로 아들과 소주를 나누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껏 기분 좋아 보이는 아이와 나란히 누웠다. 지독하던 열대야도 한풀 꺾인 해변 모래 위에서 이렇게 함께 자긴 처음이다. 이튿날, 아쉬움을 남긴 채 선착장을 뒤로하고 물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는 다시 일상의 생업으로, 이들은 부대로 돌아갔다. 다음 휴가를 나올 때까지 오직 군복무에만 충실하게 될 아들과 탁 트인 여름 바다에서 함께 어울리길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며, 2006년 늦여름, 우리 부자 사이엔 이렇게 오래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진상용_부평구 삼산동

추억의 여름휴가

지금은 자가용이 흔하지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자가용이 있는 집이 그리 흔치 않았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름휴가하면 고생했던 기억이 생각난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무렵 송림 5동 달동네에서 송도유원지행 16번 버스를 타고 휴가를 떠났다. 아이를 등에 업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삼겹살, 상추, 쌀, 김치 등 먹거리와 입을 것, 덮을 것, 텐트까지 싸들고 마치 피난민처럼 보파리를 잔뜩 지고, 들고 그렇게 다녀왔다. 그래도 그 때는 힘든지 모르고 그저 좋아서 쫓아다녔다. 텐트라고 해야 지금처럼 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 갑갑하게 딱 달라붙는 소형 텐트였다. 아기와 우리 부부는 두 다리도 쭉 뻗지 못하고 잠을 자며 밤새 모기 좋은 일만 시켰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그 시절 송도유원지는 샤워시설과 공중화장실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동그란 송도유원지 모래사장에는 텐트가 빼곡히 밭 디딜 틈 없이 꽂혔다. 인천 아닌 타 지방에서도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기억하면 그 때는 지저분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왜 그런지 요즘은 여름휴가를 떠나도 그 때처럼 즐겁지가 않다.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는 자기자기 하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늙어서일까 재미있는 것이 없다. 그 시절 그런 열정이 다시 그림이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장월란_남구 용현2동

그때 섬의 주인은 우리였다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한 아르바이트는 치킨집 서빙이었다. 장사가 잘되는 20평 남짓한 치킨집에 서빙은 나 혼자였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한번 쉬고 싶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긴 여름이 지나가나 했다. 비슷한 사정을 겪은 내 친구의 한탄 섞인 전화 한 통으로 우리는 바로 둘이서 일을 관두고 휴가다운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여름의 막바지인 8월 말경 우리는 한적한 인천 근교 섬들 중 한 곳을 골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골랐던 장소는 인천의 한 조그만 섬인 '소야도'라는 곳이다. 가뜰이나 성수기가 지나서 섬 주민들 외에는 외부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점이 우리는 더욱 맘에 들었다. 배를 타고 덕적도에 내려서 작은 통통배를

타고 소야도에 들어가는 그 맛은 정말 짜릿했다. 우린 바다를 보자마자 당장 뛰어 들어갔고 그 넓디넓은 바다에서 물장구치고 놀았다. 마치 바다를 우리가 대역한 것 마냥 바다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섬은 정말 고요했으며 평화로웠다. 밤이 되었을 때 모래사장에서 친구와 밤바다의 고요한 파도소리와 정말 깨끗했던 밤하늘과 별을 보며 시원한 생맥주를 카~하고 먹으니 그동안의 고생했던 시간들이 눈녹듯 사라졌던 것 같다. 휴식을 취하러간 휴가지로 '소야도'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김영지_연수구 청학동



영종도 해양 탐구장에서

지금부터 22년 전 여름 방학때 일이다. 초등학교 과학 주임을 맡은 나는 어린이들과 과학 활동이나 해양 탐구 활동이 중요임무였다. 그해 여름에는 5학년 어린이 50여명과 담임 선생님 등 60여명이 캠프용 텐트와 취사용품, 식재료 등을 배



낭에 가득 담아서 영종도 해양탐구장으로 향했다.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영종 해변을 3.5km걸어 중산리 갯벌의 잔디밭에 각 조별로 텐트를 쳤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갯벌 탐구가 시작되었다. 아침 출발 시간에 일기예보는 오후에 흐린다고 했지만 너무 좋은 날씨여서 몇몇 학교도 오고 교육청에서도 사진기자까지 나와서 탐구활동 모습을 촬영했다. 교사가 짧은 바지에 런닝 차림으로 나가니 어린이들은 팬티만 입고 뒤를 따라 1km도 넘는 먼 갯골까지 나가서 조개도 잡고 망둥어도 낚아서 저녁 취사 실습을 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나니 해는 서쪽 바다 속으로 빠져버리고 맑은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바다건너 인천항의 불빛이 보일 때 즈음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돌풍이 불더니 하늘의 별도 모두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고 캄캄한 무인도처럼 되면서 큰 빗방울이 몇 개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른 어린이들을 모두 천막 안으로 불러들여 비바람을 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큰 비와 천둥 번개까지 치더니 텐트를 모두 덮쳐버려 할 수 없이 교육청 본부 천막으로 옮겨서 피하는데 갑자기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빗물에서 전류를 느꼈다. 벼락이 친 것이다. 어린이들은 놀라 울고 담임들은 용기를 내자고 격려하며 아침이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통신 시설도 없어서 무인도 체험이었고 다른 학교는 모두 낮에 귀가 했는데 우리는 밤하늘 별을 탐구하자고 남은 것이 후회되는 터였다. 그러나 참고 기다린 자에게 기회는 왔다. 2~3시간이 지났을까 먹구름이 걷히더니 맑은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은하수까지 흘렀다.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을 관찰하며 모두 젖어버린 옷이 마를 때까지 해변 모래사장에서 밤새 뒤돌았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부서진 텐트들을 정리해서 돌아오는 우리는 마치 밤새 큰 전투를 치른 병사들처럼 돌아왔다. 그 후 새로 지은 인천시 교육청 청사 2층을 오르는 층계 벽에 그날 낮에 촬영한 사진이 실물크기보다 더 크게 확대돼 게시되었고 그해의 해양

탐구 학습 자료집 표지 사진에도 나와서 영원한 추억이 되었다. 그때 그 어린이들은 지금 30대의 큰 일꾼이 되어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그 추억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힘차게 도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종진_남구 용현4동

송도 해수욕장의 추억

1977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다. 당시 내 고향 용인은 산골이었고 바다가 그리웠다. 그즈음 경인선 전철이 개통되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송도로 바다구경을 가기위해 수원역을 출발했다. 전철이 왜 그리 신기한지 바닥에 앉아서 웃고 재잘거리다 보니 구로를 지나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촌놈들이 인천역에서 내리니 조그만 역 대합실과 바로 도로가 연결되어 어디서 무엇을 타고 송도해수욕장을 가야할 지 몰랐다. 길가는 시민에게 물어보니 동인천역이 제일 크고 그곳에 버스가 많다고 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기로 하고, 유원지는 물건값이 비쌀거라며 사이다 한 박스와 간식거리를 사서 송도로 향했다. 자가용이 적던 시절 송도해수욕장은 경인지역에서는 인기절정의 피서지였다. 지금은 바다가 매립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아암도해수욕장이 갯바위와 숲으로 이루어져 바닷물이 빠지면 징검다리가 나타나 뛰어가곤 했고 갯벌에 조그만 게가 많아 한 봉지를 잡아 감자를 넣고 끓여 먹기도 했다. 아깝다고 박스로 산 사이다는 뜨거워서 먹지도 못하고 샤워물을 먹고 2박3일의 휴가를 보냈다. 역이 제일 크다는 동인천역으로 왔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도를 들어가니 지하상가와 출입구가 많아 역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전철을 타고 겨우 귀향해 촌놈들의 천방지축 여름휴가는 끝이 났다. 지금은 그때 인연이었는데 인연여자를 만나 살고 있다.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곤 한다.

이성배_남동구 구월3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추석(한가위)’

다음달 테마는 ‘추석(한가위)’입니다.

‘추석(한가위)’에 얹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왕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신입생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 초·중·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 모집인원 : 남녀 00명 연령제한 없음
- 모집마감 : 9월 29일(토) 선착순 마감
-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저녁 6시~9시
-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무료
- 모집처 :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3가 3-39 자유공원 기상대 옆(구 송월동공부방 자리)
- 문의 : 인향야간학교 ☎ 772-4062 www.inhyang.net (오후 5시 이후에 문의바랍니다)

찾아오는 집단상담 실시 합니다

2007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인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집단상담을 실시합니다.

1. 인터넷 사용조절 집단상담

- 목적 : 자신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일시 : 8월 7일(화)~8월 9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대상 : 중학생 10명

2. 대인관계 회복 집단상담 - '만남, 그리고 새로운'

- 목적 :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을 높인다.
- 일시 : 8월 6일(월)~8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 대상 : 고등학생 6~8명
- 참가비 : 5,000원(참여 학생들을 위한 간식비)
- 신청 및 문의 : 프로그램 실시 이틀 전까지 전화로 신청 ☎ 429-5562~3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술교육, 자격증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자격증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논술지도사, 속독지도사
- 모집기간 : 8월 24(금)까지
- 교육기간 : 8월 27일(월)~12월 8일(토)
-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간석4동)
- 문의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 438-8131~4, www.iccu.ac.kr/life

갯가노래벚노래 전수회원 모집합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갯가노래벚노래보존회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갯가노래벚노래를 전수받아 활동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인천근해갯가노래 전반
- 지원자격 : 인천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여성
- 모집기간 : 연중
- 문의 : 갯가노래벚노래 ☎ 932-5970 · 016-323-5970

취업정보센터 이용하세요

우리시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일손이 부족한 기업체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

- 실직자를 비롯한 취업을 희망자에게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력을 구하는 업체에 대해 구인등록과 더불어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드립니다.

■ 취업정보센터 이용방법

- 구직자 : 취업정보센터 방문 ⇒ 구직표 작성 및 취업상담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Work-net) ⇒ 취업정보제공 ⇒ 구인·구직연결 취업알선
- 구인업체 : 취업정보센터 방문 ⇒ 구인표작성(사업자등록표지참) ⇒ 구인등록 및 구인신청(Work-net) ⇒ 구직자 자료검색 및 정보제공 ⇒ 취업알선

■ 취업정보센터 전화번호

- 시청 및 군·구에서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안내도 실시합니다.
- 또한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 구 청 ☎ 760-7429
- 남 구 청 ☎ 880-4387
- 남동구청 ☎ 466-1919
- 계양구청 ☎ 450-5527
- 강화군청 ☎ 930-3345
- 인천광역시청 ☎ 427-1919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 438-4668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 540-5816
- 동 구 청 ☎ 773-0358
- 연수구청 ☎ 810-7386
- 부평구청 ☎ 509-7521
- 서 구 청 ☎ 560-4476
- 옹진군청 ☎ 880-2513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에 관한 안내

■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구 분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5/100인 23억2천965만원 (제한액:465억9천300만원)	후원회를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원회를 둘 수 없음	○지역구 : 1억5천만원 ※ 비례대표지에는 예비후보자가 없음.
후보자 후원회	후원회를 둘 수 없음	○지역구 : 1억5천만원 ※ 비례대표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당선인 후원회	후원회를 둘 수 없음	○국회의원(당선인포함) : 1억5천만원 ※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을 말함. ※ 지역구후보자후원회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 후원회로 존속결의 변경등록필요. ※ 국회의원 당선인 후원회는 임기개시 후 국회의원 후원회로 분. 존속결의와 변경등록불필요
연간2배 모금·기부 특례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 ※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그 국회의원후원회가 1억5천만원을 추가한 3억원까지 가능함.

■ 후원인의 후원회에 기부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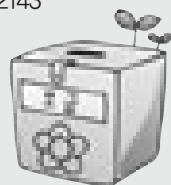
연간기부 한도액	총 2천만원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한도액	각 1천만원	각 500만원 ※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당선인 •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합한 금액을 말함

■ 후원회 사무소/사무원

	당내경선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국회의원
사무소	1개소	1개소	1개소(서울 또는 지역에)	
연락소	설치불가	설치불가	위와 같음	
사무원수	제한없음	2인	사무소·연락소 합하여 총 2인	

- 1) 국회의원후원회를 둔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없음.
- 2)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후원회
1억5천만원 + 당선시 1억5천만원 = 3억원
1억3천만원 + 당선시 1억5천만원 = 2억8천만원
- 3)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후보자로 등록시 3억원까지 해당연도에 모금할 수 있음.

- 문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428-2143



8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8월 14일, 16일, 17일(3일간)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2)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간수치 검사(GOT, GPT, r-GTP)
- 검진인원 : 100명(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 2 ☎ 580-6024

수화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합니다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수화교실을 마련해 손으로 사랑을 전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수화에 관심 있는 일반여성 또는 자원봉사자
- 모집기간 : 연중
- 교육기간 : 8월 31일(금)~12월 21일(금)
- 교육시간 : 주1회(금) 오후 2시~오후 4시
- 교육비 : 무료
- 접수 및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 여성담당 ☎ 434~6436~7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8월 20(월)~8월 31일(금)
- 교육기간 : 9월 3일(월)~11월 17일(토)
- 교육과정 : 외국어과정 (영어발음 클리닉 등 10개 강좌), 교양취미과정 (음악치료 등 24개 강좌), 자격증취득과정 (피아노 어드밴서 등 24개 강좌), 컴퓨터과정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 등
- 지원자격 : 성인 남·여(학력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교육과정별 접수 순으로 모집정원까지만 접수
- 제출서류 : 등록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 학습비 감면 : 본 교육원을 2기 이상 수료하고, 이번 학기 개설 강좌 중 2개 과정 이상 수강할 경우 한 과정 학습비의 50%를 감면 (단, 감면액은 6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로자 감면 : 만60세 이상인 재(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하여 학습비의 50% 감면
- 초·중·고 교원 : 외국어과정, 컴퓨터과정에 수강할 경우 수강료 일부를 할인 함.
- 문의 :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5401-152~153, www.ginue.ac.kr

휴가철 안전운전 대책

■ 여름철 교통사고의 요인

- 무더위 속 흥분과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운전부주의로 사고 위험이 높다.
- 장마와 더불어 돌발적인 악천후로 인한 도로 노면의 물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볼래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높다.
- 피로가 심한 상태의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크다.

■ 휴가철 안전운전 대책

- 출발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량을 점검한다.
- 운전제 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에는 한 시간마다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며 정체구간에서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겨두거나 정체가 더욱 길어지면 시동을 끄고 쉬는 것도 피로누적을 피하는 방법이다
- 졸음운전의 예방대책
 - 장거리 여행 전에는 평소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운전을 앞두고는 절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감기약 등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들어간 약은 먹지 말아야 한다.
 - 졸음이 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휴게소에 들어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 자료제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 830-6162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인하대 평생교육원은 일반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정

- 사회교육과정 : 자격증 취득 과정(국가자격·대평교협자격·민간자격 등 12개 과정), 전문과정(메디컬 스킨케어, 실전 경매전문가), 창업특강(프랜차이즈 구축과정 등 4개 과정), 시민대학(사랑방학교 등 4개 과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정(사회복지학, 경영학)
- 아동청소년 교육과정 : 과학영재(초등부, 중·고등부), 유아(어린이영어교실 등 4개 과정), 유아·초등(재즈 & 힙합댄스 등 4개 과정), 초·중등(발표력 리더십향상, 동화구연 등 10개 과정)

■ 접수기간 : 8월 1일(수)~8월 28일(화)

■ 문의 :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 860-8292~6

<http://conedu.inha.ac.kr>



대학생 자원봉사단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일시 : 6월~12월

■ 대상 : 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할 20세 이상 성인

■ 신청방법 : 전화, 직접방문신청 또는 학교단위로 단체신청 가능

■ 내용 : 청소년프로그램 보조기획, 진행, 평가 등

■ 문의 : 동구청소년 수련관 이영근 ☎ 761-1318

2007 인천 노인일자리 박람회 열립니다

인천광역시와 경인지방노동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노인취업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 일시 : 9월 5일(수) 오전 10시 ~오후 4시

■ 장소 : 인천광역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연수구 동춘동 소재)

■ 참가직종 : 60세 이상 취업희망자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

■ 구직자 : 주민등록증, 이력서, 사진 지참 행사장 참석

■ 업체참여접수 : 전화 또는 팩스접수

■ 접수기간 : 7월 1일(월)~8월 31일(금)

■ 접수 및 문의 : 인천광역시노인취업정보센터 ☎ 886-1853~5 FAX 886-1856 www.innojung.go.kr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합니다

미추홀 문화회관에서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다채롭고 유용한 문화적 삶의 시작을 도움과 동시에,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25기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8월 13일(월)~9월 8일(토)

■ 강좌기간 : 9월 3일(월)~11월 24일(토)

■ 장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강좌내용

1. 전문인 무료 특강 : 경제적인 재테크를 통한 부자 되는 길 (9월 4일 11:00~12:20), 입시 대비 자녀 학습법(9월 11일 11:00~12:20)
2. 무료강좌(3개월)
 - 어린이(한자, 중국어, 요들나라, 어린이 교육연극 & 뮤지컬), 성인(서예, 유화, 주부 연극 & 뮤지컬, 성악, 인천향토 춤사위, 도덕경 & 수필창작, 사진촬영, 일러화화, 녹색식물과 원예치료, 실버한국무용, 중국어회화, 파스텔화, 프레스플라워, 풍선아트, 플로리스트 사범 및 화훼장식사 자격증반)

3. 정규강좌 : 공예·미술·무용·음악·어학·교양·건강·스포츠·창의력 계발·학습 계발·임산부·전문인 양성 및 자격증반·창업반·요리·천연화장품 & 비누·행복 요리교실(어린이·성인)

4. 활기차고 신나는 야외 수업 : 어린이 축구교실 (6~7세, 초등학생)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 0250 www.mchart.co.kr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대리운전을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 보험가입증명서 확인, 보험회사 24시 콜센터 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 교통사고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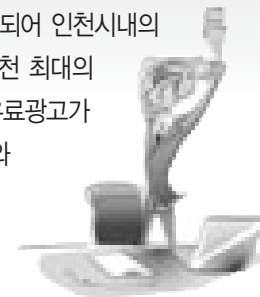
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2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컬러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백56만2천원	1백66만5천원	1백28만1천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굿모닝인천〉편집팀 (☎ 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국가유공자 유경근(劉景根) 무공수훈자 (1877. 10. 27~1956. 1. 16)



유경근 독립유공자는 1877년 10월 인천 강화 출생이다. 1919년 3월 18일 인천 강화군 부내 면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주모자를 색출하자 서울로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었으나 일신상의 문제로 보석되었다.

그 후 이동휘로부터 독립군양성을 위해 국내지원자를 모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김헌구와 함께 여러 명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입대시켰고 임정의 연통제 조직 및 대동단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

였다. 1920년 8월 만주광복군 총영으로부터 미국의원단의 내한을 계기로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일제기관 등의 파괴용 폭탄과 육혈포 등을 결사대장 김영철이 가지고 와서 유경근의 집에 보관하게 한 사실이 일경에게 탐지되어 체포돼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강화군에서 광명학교를 설립하고 청소년교육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 ☎ 430-0125

여름철
힘붙는
피부
매끈
장어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는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깊은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다. 장어 100g에는 달걀 10개, 우유 5ℓ에 해당하는 양의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원기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품이다.

오장육부가 허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장어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오장육부를 보호해 주어 양기가 생기면서 허리나 무릎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장어에는 다량의 레티놀 성분이 들어 있어 부스럼이나 치질 같은 병에 도움이 되고 피부의 탄력을 좋게 하고 윤기가 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도 민물장어를 바닷물에서 순치시켜 느끼한 지방성분을 빼준 갯벌장어가 유명하고 강화 더리미마을은 ‘장어마을’로 이름이 높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